

뉴욕
노인상조회
30년을 돌아보다

Looking Back on 30 Years of
Korean-American Senior Mutual Association
1996~2026



30주년 기념행사

일시: 2026년 5월 29일(금) 오후 6시 장소: 디모스 연회장



***수상자 소개**

1. 임형빈 초대회장은 45년 전인 55세에 뉴욕이 정착하여 1984년 플러싱 노인회를 설립하였고 그후 노인문제상담센터, 뉴욕노인상조회, 플러싱경로센터, 한미충효회, 노인유권자연합회 등 15개 이상의 단체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거의 모든 단체가 동포사회를 위하여 활발히 움직이고 있어 동포노인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2. 김민호 장례원 원장은 한국에서 장례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와 미국 장례면허 취득 후 동포사회의 장례문화 개선의 선봉에 가장 경건하고 엄숙한 장례서비스와 장례비 절감을 통하여 동포들을 물질, 심적으로 도와주고있으며 특히 본 상조회와 특별협력협정을 맺어 상조회 회원들에 대한 특별대우를 제공하고 있다.
3. 유현순 상조회 직원은 20년 근속 상조회의 경리사원으로 재직하면서 성실과 근면한 자세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회계처리와 친절한 회원 응대로 6천여 회원들의 감사와 칭송을 받고있다.
4. 허도행 사무총장은 30년 역사중 15년동안 제 2대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상조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식순

사회: 허도행 사무총장

개회선언 및 인사말 Opening Performance	이사장 서경숙
국민의례 National Ceremony	국기에 대한 경례, 미국가, 애국가 김영환 전도사
개회기도 Opening Prayer and Message from God's Word	허연행 목사
하나님 말씀 Message from God's Word	80세된 모세에게 일감을 주시는 하나님 이풍삼 목사
인사말 President's speech	회장 임규흥
내빈 및 상조회 이사 소개 Introduction of guest and directors	사회자
격려사 The first President's Encouragement Speech	초대회장 임형빈
창립 30주년 경과보고 Report on development for 30 years	사무총장 허도행
축 사 Congratulatory speech	뉴욕한인회장 이명석 KAAGNY President 뉴욕총영사 김상호 Consul General in NY
공로패 수여 Award of appreciation plaque	회장 임규흥
수상자 인사 Awardees' remarks	임형빈 김민호 유현순 허도행
축 가 Song of congratulation	피아노 홍유, 김영환
축 주 Special Performance	뉴욕팬플룻 동호회
축 주 Special Performance	팬플룻 독주, 유현순
폐회인사 Closing Remarks	이사장 서경숙
식사기도 및 만찬 Pray & Dinner	황경일 목사



뉴욕노인상조회 회장 임규홍

President of KASMA Peter K. Lim

뉴욕노인상조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내외 귀빈 여러분을 모시고 축하행사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30년 전인 1996년 5월, 동포끼리 서로 상부상조하여 자신의 장례비를 손수 마련하려는 노인들이 이러한 단체 구성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임형빈 초대회장님을 비롯한 뜻을 모은 노인들이 힘을 합하여 상조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후 전임 회장님들과 이사장, 이사님들, 그리고 지금까지 상조회에 가입하신 회원님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이와같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본회가 창립 30주년을 맞게된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몸 담고 살아가는 이땅의 우리 민족을 비롯한 타 민족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기본으로 설립된 상조회는 나날이 설장을 거듭하여 명실공히 한인사회의 귀감이 되는 자랑스러운 단체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지난 30년동안 회원님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신 5천여 명의 회원님들 유족에게 6천만불의 장례비를 모아주신 상조회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강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0년전 상조회20년사를 펴낸 이후 간략하나마 30년의 상조회 역사를 기술하여 소책자로 발행하였사오니 읽어보시고 상조회를 성원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t is my great pleasure to welcome distinguished guests and members as we gather to celebrate the 3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American Senior Mutual Association.

Thirty years ago, in May 1996, a group of seniors in our community recognized the need for an organization where members could support one another and prepare for their own funeral expenses through mutual aid. With this shared vision, our founding president, Mr. Hyung Bin Im, along with other dedicated seniors, joined efforts to establish this association.

Since then, thanks to the devoted leadership of our former presidents, chairpersons, board members, and the continued commitment of all our members, the association has achieved remarkable growth.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everyone who has contributed to reaching this meaningful 30th anniversary milestone.

Founded on the spirit of mutual assistance, our association has not only supported our own Korean community but has also extended help to neighbors from diverse backgrounds. Over the years, it has grown steadily and proudly established itself as a model organization within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Over the past three decades, our members have come together to provide approximately \$60 million in funeral assistance to the families of more than 5,000 deceased members. I extend my heartfelt appreciation to all our members for their compassion and generosity, and I wish you continued health and peace.

Ten years ago, we published a 20-year history of the association. Now, we have compiled a brief account of the past 30 years and published it in booklet form. I kindly ask that you take the time to read it and continue to support and encourage our association.

Very truly yours

축사 Congratulatory Remarks



뉴욕한인회장 이명석

President of KAAGNY Myung Seok Lee

창립 30주년을 맞는 뉴욕상조회의 놀라운 성장을 축하드리며 축사의 자리로 초대받아 동포여러분을 뵈게 되어 감사합니다.

창립 초창기에 저의 부모님께서 상조회에 가입하셔서 상조회의 발전상을 눈여겨 보게 되었으며 수년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어 당시 6천여명의 상조회 회원님들께서 모아주신 조의금으로 무사히 장례를 치르게 되었음을 상기하며 다시 여러분을 만나뵈니 반가운 인사와 함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뉴욕한인회장으로서 상조회를 비롯한 여러 한인 단체들과 동거동락하면서 타민족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한인사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주력할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뉴욕노인상조회는 지난 30년동안 장례문화 개선을 통하여 우리 부모님들의 장례를 저렴한 비용과 가장 경건하고 엄숙한 장례로 모시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온 단체로서 저희 한인회에서도 대폭적인 지원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보며 발전해 나갈 상조회의 앞날을 기대하며 상조회 임직원님, 그리고 회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가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It is a great honor to be invited to deliver congratulatory remarks on the occas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American Senior Mutual Association. I extend my sincere congratulations on its remarkable growth and am grateful for the opportunity to be here with all of you today.

In the early years of the association, my parents became members, which allowed me to closely observe its development. Several years ago, when my parents passed away, I was able to carry out their funeral services with the generous condolence contributions collected by approximately 6,000 members of the association at that time. As I stand before you again today, I would like to express both my heartfelt gratitude and my warm greetings to all of you.

As President of the New York Korean American Association,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reaffirm my commitment to working together with various Korean-American organizations, including this association, to strengthen our community and elevate its standing through active engagement and exchange with other communities.

In particular, the Association has, over the past 30 years, made its utmost efforts to improve funeral practices, striving to provide our parents with the most reverent and dignified services at affordable costs. As such, our Korean Association is committed to maintaining strong support and a close cooperative partnership with the organization.

Looking ahead, I have great expectations for the continued growth and long-term future of the association as it moves toward its centennial. Once again, I extend my sincere congratulations to the officers and members of the association.

I wish you all good health and peace in your homes.

축사 Congratulatory Remarks



뉴욕총영사관 총영사 김상호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NY Kim Sang-ho

뉴욕노인상조회의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on the 3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American Senior Mutual Association.

지난 30년간 헌신해 오신 회장님,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이사님과 임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회원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the President,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all board members, and staff for their dedication and service over the past 30 years. I also extend my deepest respect to all senior members of the Association.

저는 지난 5월 11일 주뉴욕총영사로 부임하며 동포 여러분께 세 가지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동포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합치, 그리고 동포들의 권익을 지켜내는 도전입니다. 오늘 30주년을 맞이한 뉴욕노인상조회의 역사에는 이 세 가지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When I assumed my duties as the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New York on May 11, I made three promises to our Korean community: “communication” by listening closely to the voices of our community, “unity” by bringing our hearts together, and “challenge” by protecting and advanc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our fellow Koreans abroad. I believe the 30-year history of the Association embodies all three of these values.

상조회는 고령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가장 먼저 보듬어 온 소통의 거점이었습니다.

The Association has served as a vital center of communication, embracing and supporting the concerns of senior Korean Americans before anyone else. Moreover, the spirit of mutual assistance fostered by the Association sharing both sorrow and joy together stands as a model of unity within our community. Finally, the Association’s history of safeguarding the welfare and dignity of our seniors while pioneering a better life in a foreign land represents a truly remarkable commitment and challenge.

아울러, 슬픔과 기쁨을 나누며 동포사회의 마음을 묶어온 상조회의 상호부조는 합치의 표본입니다.

Because of the deep roots that the Association has established over the past 30 years, the future of the Korean community in New York remains strong and promising.

마지막으로, 이국땅에서 어르신들의 복지와 존엄한 삶을 개척하고 지켜온 상조회의 역사는 위대한 도전이었다 하겠습니다.

Once again, congratulations on your 30th anniversary, and I wish all those in attendance and their families continued health, happiness, and peace.

이처럼 뉴욕노인상조회가 다져온 30년의 깊은 뿌리가 있기에 뉴욕 동포사회의 미래는 든든합니다.

Thank you.

다시 한번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창립회장 임형빈

Founding President Hyungbin Im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그러니까 내 나이 90살때 뉴욕노인상조회 2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위한 축사 서두에 나는 이렇게 썼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하였는데 상조회가 발족된지 어언 20년의 세월이 흘러 창립 20주년을 맞게 되었으니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그후 또 한번의 10년이 지나 내가 100살이 되고나서 창립 30년을 축하하는 또 한번의 축사를 쓰게 되었으니 지금까지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뿐이다.

여기서 내가 내 일생중에 가장 잘한 일이며 지금도 가슴 뿌듯이 생각하고 가장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은것은 내가 1996년 설립한 상조회가 이렇게 크게 발전하여 동포들의 귀감이 되고 자랑스런 단체가 되었다는 점이다.

동포들끼리 서로 도와 먼저 세상을 떠난 회원들의 자녀들에게 조의금을 모아 주어 편히 장례를 치르게 하여 고인을 저 세상으로 보내드리는 한인 특유의 상부상조의 정신은 타 민족의 추종을 불허할 미풍양속이다.

나도 상조회 회원번호 1번으로서 이렇게 오래 사니 30년동안 나보다 먼저 세상 떠난 5천여 명의 회원들에게 조의금을 보내서 사랑을 보여주었으니 세상 떠난 그분들에게 내마음이 애뜻하기도 하지만 내가 그분들의 유족을 도와준 일에 마음 뿌듯한 보람을 느낀다.

이러한 사랑과 동포애로 뭉쳐진 뉴욕상조회 30주년을 축하하며 100년 대계를 바라보는 상조회에 대하여 더 크신 성원과 격려를 바라는 바입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가내 평안하십시오.

Ten years ago, when I was 90 years old, I wrote the opening remarks for the 20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as follows:

“Time flows like water, and before we knew it, 2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ounding of our association. As we celebrate this 20th anniversary, I am filled with deep emotion.”

Another ten years have now passed. At the age of 100, I find myself once again writing a congratulatory message for the 30th anniversary. I can only give thanks to God for granting me such health and longevity.

Among all the things I have done in my life, the one I consider my greatest accomplishment and the one I speak of with the deepest pride is founding this mutual aid society in 1996. To see it grow into such a respected and exemplary organization within our community fills my heart with immense satisf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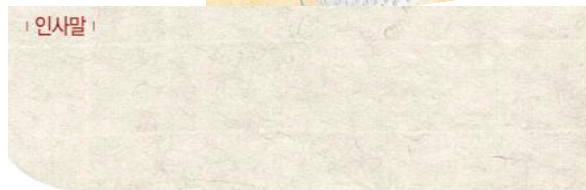
The spirit of mutual support among our fellow Koreans coming together to help the families of members who have passed away, collecting condolence funds so they may conduct proper funerals and send their loved ones off with dignity is a beautiful tradition unique to our people, one that few other communities can rival.

As member number one, I have lived long enough to witness over 5,000 fellow members pass before me over the past 30 years. While my heart feels a deep sense of sorrow for those who have departed, I also feel a profound sense of fulfillment knowing that I was able to help their families in their time of need.

We congratulate the 30th anniversary of the Association united by such love and fellowship, and sincerely hope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encouragement as it looks ahead to the next hundred years.

I wish you all good health and peace in your homes.

1996년에 설립된 뉴욕한인노인상조회는 2017년 20년사를 발간하고 성대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상조회 20년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소개하고 이후 10년간의 역사를 추가로 기술하여 이곳에 수록하였다.



 뉴욕한인노인상조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년 전인 1996년 본회의 설립 당시만 해도 의구심과 실험 속에 시작한 상조회이지만 '자녀 사랑'이라는 특유의 한국인의 기질을 바탕으로 적지 않은 역경과 고난의 파고를 이겨내고 오늘날 6,700명이라는 기대 이상의 실존 회원수를 확보하고 날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는 한인 단체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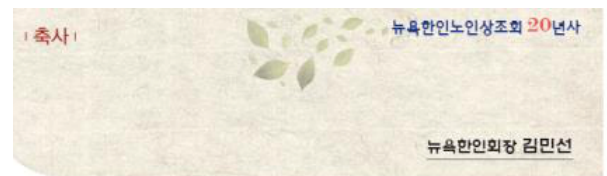
설립 초기에 상조회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동포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본 상조회가 미국에서 단단한 뿌리를 내릴 수 있었으며 또한 이곳에는 동포 여러분의 자랑스런 기개와 열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머나먼 미국 땅에서 우리 동포들은 당당함을 잃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동포 노인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종의인간적 정신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셨기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길지도 않지만 결코 짧지도 않은 세월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승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하였는데 노인상조회가 발족한 지 어언 20년의 세월이 흘러 7천 명에 육박하는 회원을 거느린 건실한 단체로 성장하게 되었으니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상조회 설립 전에 후러싱 노인회에서 롱아일랜드 파인론에 매월 20불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한인들의 전용 모지 300기를 마련한 것이 상조회



존경하는 뉴욕한인노인상조회 회원 여러분,
뉴욕한인노인상조회 창립 20주년을 돌아보는 기념책자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한인노인상조회는 1996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웃끼리 상부



뉴욕한인노인상조회의 20년 역사를 담은 책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한 전혜병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뉴욕한인노인상조회는 한인사회의 가장 아름답고 보람된 일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슬

축사



뉴욕한인노인상조회 20년사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일을 시작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일을 20년간 지속하며 성장시키는 일은 더 힘든 일이라고 봅니다. 뉴욕한인노인상조회는 뉴욕 특유의 집합성과 끈기로 전 미주를 통털어 가장 크고 안정된 상조회로 그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간 수고하신 창립멤버, 역대 회장

축사

뉴욕한인노인상조회 20년사

Member of Congress, Grace Meng



Korean American Senior Mutual Association
35-06 Leavitt Street 1 FL, #CF-F
Flushing, New York 11354

Dear Korean American Senior Mutual Association:

I am delighted to extend my heartfelt greetings to all gathered at the Korean American Senior Mutual Association 20th Anniversary Commemoration.

축사

뉴욕한인노인상조회 20년사

President, Borough of Queens Melinda Katz



Korean-American Senior Mutual Association Inc, New York
35-06 Leavitt street, #CF-F
Flushing, New York 11354

Dear Korean-American Senior Mutual Association, New York

Greetings to you, Chairman, the Board of Directors, and all your supporters on the occasion of your 20th Anniversary Commemoration.

축사

뉴욕한인노인상조회 20년사

Member of Assembly, Ron Kim



Dear Chairman:

It is with great pleasure that I extend my warmest greetings and congratulations on the occasion of the Korean American Senior Mutual Association (KASMA)'s 20th Anniversary Commemoration.

축사

뉴욕한인노인상조회 20년사

원조한인회장 김수현



뉴욕한인노인상조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고 이에 따른 20년사를 발간하신 데 대하여 원조 한인동포사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뉴욕한인노인상조회는 뉴욕 한인사회 어르신들의 모범을 보여

뉴욕한인노인상조회 20년사

축사

Member of Congress, Charles B. Rangel



Chairman
Korean-American Senior Mutual Association
35-06 Leavitt Street, Suite CF-F
Flushing, NY 11354

Dear Friends:

As the Dean of the New York Congressional Delegation, it is my great pleasure to congratulate the Korean-American Senior Mutual Association (KASMA) on the occasion of your 20th anniversary. I am especially honored to acknowledge the

축사

뉴욕한인노인상조회 20년사

Senator Toby Ann Stavisky



The Korean American Senior Mutual Association, Inc. New York
35-06 Leavitt Street, 1st Floor., #CF-F
Flushing, New York 11354

Dear Friends:

I am delighted to congratulate you on the occasion of your Twentieth Anniversary celebration.

뉴욕노인상조회 간략 연혁



- | | | |
|-------|---------|---|
| 1996년 | 4월 13일 | 금강산 식당에서 창립 총회 개최 |
| | 5월 30일 | 미동각 연회장에서 상조회 개소식과 경로잔치 개최 |
| 1997년 | 5월 8일 | 플러싱 플라자 너싱홈에서 불우노인을 위한 경로잔치 행사 |
| | 8월 3일 | 본국 수해 동포 돕기, 홍수로 인한 본국 수재민들을 위한 성금 전달 |
| | 9월 16일 | 한국 추석 성묘 및 하와이 제주도 보너스 관광 |
| | 9월 26일 | 코네티컷 스칸츠 폰드 파크로 200여 회원이 단풍관광 |
| 1998년 | 1월 15일 | 정기 이사회 개최. 회원 가입 연령을 90세에서 80세로 하향 결의 |
| | 4월 14일 | 불우 우수학생 후원 - 국제과학기술대회에 경비 능력이 없어 포기할 수 밖에 없는 크리스틴 고 양에게 \$1000을 지원. |
| | 5월 30일 | 2 박 3일간 일정으로 회원 50명과 캐나다 관광 |
| | 12월 22일 | 후러싱 밀알의 집 장애인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전달 |
| | 12월 24일 | 연말을 맞아 스태튼 아일랜드 소재 상록장 양로원을 방문하여 한인 노인들에게 선물 전달 및 경로잔치 행사 |
| 1999년 | 2월 6일 | 구정 경로잔치 - 순복음교회에서 600명 회원 참석 경로잔치 |
| | 2월 29일 | 회원 1000명 돌파 - 박승철 회원에게 1000번째 회원 증서 전달 |
| 2001년 | 2월 1일 | 정기 이사회(회원 가입 연령을 80세에서 77세로 하향 조정. 2001년 5월1일부터 시행결의) |
| | 4월 18일 | UN 함마슬트 광장에서 300여 명의 회원이 일본 교과서 왜곡 규탄시위 참여 |
| | 4월 24일 | 회원 54명 미 서부 일대 관광 |
| | 5월 18일 | 창립 5주년 기념행사 개최 및 축하 대공연 |
| | 9월 16일 | 147명 회원 모국 방문 여행 실시 |
| 2002년 | 1월 23일 | 900명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순복음뉴욕교회에서 구정 잔치 개최 |
| | 2월 1일 | 정기이사회 시 회장 임기 2년 후 1회 연임 가능 결의 |
| | 4월 8일 | 회원 40명이 일본 규슈 온천 경유 모국 방문 |
| | 4월 18일 | 1, 2, 3대 임형빈 회장 퇴임하고 심윤석 4대 회장 취임 |
| | 9월 9일 | 회원 46명 하와이 경유 모국 방문 |
| | 10월 18일 | 회원 210명 델라웨어로 가을 야유회 |
| | 11월 18일 | 정기이사회 시 이사 수를 20명에서 25명으로 증원 결의 |
| 2003년 | 5월 30일 | 회원 225명 웨체스터 조지 아일랜드로 봄 야유회 |
| | 12월 31일 | 총 지급 상조금 200만 불 돌파 |
| 2004년 | 5월 14일 | 회원 215명 웨체스터 체스톤 파크로 봄 야유회 |
| | 9월 13일 | 회원 40명 모국방문 |
| | 12월 31일 | 총 지급 상조금 300만 불 돌파 |
| 2005년 | 1월 1일 | 총 가입회원 3,000명 돌파 |
| | 2월 25일 | 정기이사회 시 가입 연령 77세에서 75세로 인하 결의 및 직전회장, 직전 이사장을 고문으로 추대키로 결의 |
| | 5월 13일 | 회원 47명 바하마 유람선 관광 |

2005년	5월 27일	회원 203명 핵섬 스테이트 파크로 봄 야유회
	9월 5일	회원 140명 태국 경유 모국 방문
	12월 31일	총 지급 상조금 4백20만 불 돌파
2006년	2월 28일	제6대 최학규 회장 취임. 장제성 이사장 선임
	5월 18일	창립 제10주년 기념식 개최
2007년	8월	무료 영정사진 회원 1,000명 촬영. 이관행 봉사자, 박기영 통증병원 협찬
	9월 21일	회원 42명 북경 경유 모국 방문
	10월 13일	회원 202명 뉴저지 늘푸른 농장 방문
	10월 30일	정기이사회 시 최학규 회장 연임 결의, 김종식 이사장 선임
	12월 31일	총 상조금 지급액 610만 불 돌파
2008년	1월 28일	제7대 최학규 회장 취임, 김종식 이사장 취임
	2월 25일	상조회 자체 사무실 구입 Closing, 구입가격 \$901,241, 실용면적 1,576 Square feet
2008년	3월 10일	A, B, C조에 이어 D조 신설, 회원 모집
	9월 5일	회원 30명 동남아 경유 모국 방문
2009년	7월 31일	정기이사회 시 제8대 김진형 회장 선출, 김종식 이사장 선출
	9월 30일	D조 조직 1년 6개월 만에 1,200명 모집 총원, 총 가입회원 5,000명 돌파
2010년	1월 1일	제8대 김진형 회장 취임
	9월 8일	임형빈 명예회장 사퇴
	9월 11일	회원 50명 추석맞이 고국 방문
	12월 23일	건물 구입 시 차입금 10만 불을 차입 2년 10개월 만에 완전 상환
	12월 31일	총 상조금 지급액 1,000만 불 돌파
2011년	1월 20일	정기이사회 시 재임 15년 만에 퇴임하는 김영주 사무총장의 퇴임 및 신임 허도행 사무총장 인준
	4월	무료 영정사진 회원 503명 촬영, 이관행 봉사자
	8월 15일	제10차 정관 개정, 회장의 임기를 2년 임기 후 1회 연임규정을 3년 단임제로 개정
	12월 31일	총 지급 상조금 1,200만 불 돌파
	12월 31일	정기이사회 시 김동식 감사를 제9대 회장으로 선출
2012년	12월 31일	총 지급 상조금 1,400만 불 돌파, 총 자산 160만 불
	12월 31일	정기이사회 시 제9대 김동식 회장, 서상갑 이사장 취임인사
2013년	7월	설립 후 16년간 회계자료의 취합 및 집대성
	7월	배다니엘 상조회 고문변호사 선임 및 매월 1회 무료 법률상담 실시
2014년	6월 1일	각 조별(A,B,C,D,F)5개조의 대통합 실시로 상조금 \$15,000-동액금액 지급 시행
	11월 1일	수납업무의 전산화 이룩
	11월 1일	IRS 감사 피감
2015년	6월 25일	네팔 지진 피해 이재민을 위하여 회원들이 모금한 성금 한국일보 전달
	9월 24일	제1회 추석맞이 불우이웃돕기 쌀 나눔의 행사
	9월 26일	맨해튼 건축현장 한인 폭행 피해자 성금 전달
	10월 22일	정기이사회 시 제10대 회장으로 최준홍 이사, 이사장으로 정원조 이사 선출
	12월 14일	찰스 랭글 하원의원이 12월 14일을 뉴욕한인노인상조회 날로 선포하고 선언문 증정차 본회 내방

2016년	1월 1일	최준홍 회장, 정원조 이사장 취임
	5월 31일	설립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행사 시 장학생 4명에게 장학금 수여
	7월 25일	제10대 최준홍 회장 사퇴, 정원조 이사장 동반 퇴임
	7월 26일	임시이사회에서 전해병 이사를 제11대 회장으로 선출, 이사장으로 김석화 이사 선출
2016년	9월 13일	제2회 추석맞이 불우이웃돕기 쌀 나눔의 행사
	11월 15일	퀸즈 북부경찰서 주최 Grandmother's love 단체 추수감사절 행사에 쌀과 터키 기증
2017년	4월 30일	빈곤가정 우수학생 9명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 행사 개최
	7월 20일	정기이사회 시 임형빈 명예회장직 회복 결의
	9월 19일	제3회 추석맞이 불우이웃 쌀 나눔의 행사 개최
	12월 18일	상조회 20년사 출판기념회 개최
2018년	8월 30일	상조회 1만번째 가입회원(유태원씨) 축하행사
	9월 13일	본회 Website kasmany.com 개통(제작업체; Han Tech, 대표 Phil Bae)
	9월 21일	제4회 불우이웃돕기 쌀 나눔의 행사 개최
	12월 27일	제12대 배광수 신임회장, 나윤표 신임이사장 이.취임식
2019년	9월 7일	미동부 추석대잔치 참가, 대대적인 가입홍보활동 전개
	9월 13일	제5회 불우이웃돕기 쌀 나눔의 행사 개최
2020년	3월 3일	뉴저지 사무소 개설(Senior Solution Agency 사무실 내, 대표 어수정
	3-7월	팬데믹 사태로 5개월간 회원사망율 3배 증가, 350명 사망
	11월 10일	제6회 불우이웃돕기 쌀 나눔의 행사
2021년	5월 3일	창립 25주년 기념행사 개최
	11월 8일	제7회 불우이웃돕기 쌀 나눔의 행사
2022년	1월 4일	제13대 박성술 신임회장, 김영부 신임이사장 이.취임식
	11월 8일	제8회 불우이웃돕기 쌀 나눔의 행사
2023년	5월 1일	창립 27주년 기념행사
	5월 4일	상조회, 한인상공회의소, 브루크린한인회, 백세인클럽 업무협약 체결
	6월 30일	창립 후 27년간 사망회원 3천8백명, 총지급 상조금 5천만불 기록.
	9월 8일	제9회 불우이웃돕기 쌀 나눔의 행사
2024년	5월 24일	원스탑 데이케어에서 상조회 창립 28주년 기념 본회 회원 200명 초청만찬 개최
	11월 8일	제10회 불우이웃돕기 쌀 나눔의 행사
2025년	1월 3일	제14대 임규홍 신임회장, 서경숙 신임이사장 이, 취임식
	5월 13일	뉴욕한인회와 노인복지 장례위원회 발족, 장례위원장 박성술 고문, 위원 허도행 사무총장, 김민호 장례원대표 위촉
2025년	9월 18일	본회 산하 뉴욕주정부 인가 비영리단체 뉴욕장례지원재단(Korean American Funeral Support Association{KAFFSA}) 설립, 이사 임규홍, 김성권, 허도행 3명 위촉
	11월 7일	제11회 불우이웃돕기 쌀 나눔의 행사
	12월 19일	박성술, 김영부 이사 2명 정년 퇴임식
	12월 31일	창립 후 29년 7개월간 사망회원 4천5백명, 총지급 상조금 6천5십만불, 현재까지 가입회원 1만1천8백명, 실존회원 5천9백명.
2026년	1월 2일	상조회 신년하례식
	5월 29일	창립30주년 기념식



창립과 성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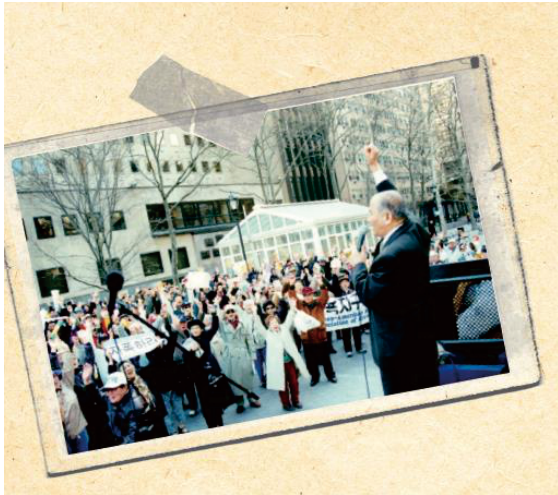
뉴욕한인노인상조회는 동포 노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홍익인간적 정신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1996년 5월 1일 초대 회장으로 취임한 임형빈 씨를 주축으로 탄생되었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미국은 최소한의 노후 생활은 보장하여 주고 있으나 그렇다고 장례비까지 보장하여 주지는 않는다. 미국의 장례는 서구의 전통에 따라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사망시 거의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므로 장례식 전반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유족들이 장례 비용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부상조의 정신과 사후 자녀들에게 장례비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한인들 특유의 자녀 사랑의 정신이 상조회의 발족으로 이어졌으며 이들에 의한 상조회 사랑으로 절실히 나타나고 있다. L.A. 지역에서는 1980년대부터 노인상조회를 발족해 현재 4~5개 단체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회원들에게 많은 혜택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는데 뉴욕에는 아직도 이런 단체가 없어 뉴욕에도 노인 상조회를 발족시키자는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게 된 것이다.

뉴욕한인노인상조회는 설립 21년 만에 총 9천5백 명이 상조회에 가입하여 2017년 7월 현재 실존 가입자가 7천 명에 육박하는 놀라운 숫자가 이를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상조회의 역사를 말하면서 임형빈 초대 회장을 빼놓을 수 없다. 9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인사회를 위하여 유권자 연합회, 한미 총효회 등의 단체를 이끌고 있는 임 회장은 뉴욕한인노인상조회의 살아 있는 역사이기도 하다.

임형빈 초대, 2, 3대 회장

재임기간:

1996년 5월 13일 - 2002년 4월 30일



1996년 5월 30일 미동각에서 개소식을 갖고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



▲새로 창립된 한인노인상조회 회장단이 1일 본사를 내렸다. 사진왼쪽부터 김금석 부회장, 이재현 수석부회장, 임형빈 회장.

드디어 회원 가입 900명 돌파

작년초 400명선이던 회원이 불과 한해동안 500명의 가입으로 현재 9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때 머지않아 1,000명에 도달할것으로 예견되며 이때 이후 사망회원에게는 10,000불이상의 상조금을 지불할수 있게 됨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 가입자격 : 건강한 노인으로서 55세부터 80세까지
- 가입비 : 55세~70세까지 100불, 71세~80세까지 150불, 년회비는 공히 30불
- 상조금 : 가입후 6개월 미만 사망시는 지급치 않음, 만 1년 미만 사망시는 현금 상조금의 80% 지급, 만 2년 미만 사망시는 현금 상조금의 90% 지급, 만 2년이 초과 사망시는 상조금의 100% 지급
- 묘지일선 : 파이렌메오리아파크공원 묘지 1기당 2195불, 계약시 35불지불 해월 30불씩 분할상환
- 특 권 : 회원에 한하여 중앙장의사, 재미장의사, 김기호 장의사에서 총장제비율 10%~15% 할인혜택

뉴욕한인노인상조회
The Korean-American Senior Mutual Association, Inc.
35-36 Union St. Basement, Flushing, NY 11354
Tel (718)762-3515, 6460

상조회가 설립된 지 만 2년 7개월 되는 1999년 1월 가입자가 9백명을 넘긴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일종의 경이적인 기록으로 여겨졌다.



노인위한 활동 공로 로즈크리작상 수상

임형빈 노인상조회장

임형빈 뉴욕한인노인상조회장이 제 1회 로즈크리작 시니어 지도자상을 받았다.

이 상은 뉴욕시 노인들의 사회복지와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해오다 지난 해 90세를 일기로 타계한 고 로즈크리작 여사의 공로를 기리기위해 종교기관 UPRAM이 올해 처음으로 제정한 것.

시상식은 지난 9일 퀸즈 테라스온더파크에서 열렸다. 시상식은 전 미리오쿠모 주지사의 부인 마릴라 라파쿠모모 여사가 나와 거행했다.

임 회장은 "수상의 영광을 뉴욕에 사는 한인 노인 모두에게 돌리고 싶다"며 "앞으로 한인 노인들의 복지와 권익 신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욕한인노인상조회는 그동안 한 마릴라 라파 쿠모모 여사로부터 상패를 받은 임형빈 회장(왼쪽), 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생계보조금(S.S.D) 시 민권신장 등을 도와 '윌스비' 무료 영어교실, 상조 활동을 펴왔다.

임 회장은 "현재 상조회에는 한인 노인 약 1천5백명이 가입, 상조비를 충당하고 있다"며 "앞으로 상조회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은숙 기자
<nyresk@joongangusa.com>

세게일보

노인상조회, '2002년 구경 경로 대잔치'

1천여 회원들 참석 성료

조형영사 "노인들 건강 기원"

뉴욕한인노인상조회(회장 임형빈)는 6월 23일 오후 2시 소크 스포츠 센터에서 '2002 구경 경로 대잔치'를 개최했다.

뉴욕총영사관 조형영 총영사, 뉴욕교회의회의 장영일 회장, 장 리우 플러싱 지역 사회의원을 비롯한 뉴욕한인사회 인사들과 귀빈, 그리고 뉴욕한인노인상조회 회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임형빈 회장은 "911 테러라는 엄청난 재난의 2002년을 역사로 뒤안길로 보내고 이제 삶의 해 2002년을 맞이하자"며 "우리 한국인의 자랑스러운 전통인 충효정신을 바탕으로 하얗게도 잊지 않고 충효정신으로 도와주는 뉴욕한인사회의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고 밝혔다.

조형영 총영사는 "스페인어권 한인 단체와 교류하여 좋은 분위기 조성하고, 화기애애하고, 기쁘게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며 "인간의 지혜는 나이에 비례하므로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를 젊은 세대에 가르쳐 주시고, 올곧게 건강하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뉴욕시 최초의 아시안계 장 리우 시의원은 "플러싱 그리스도 뉴욕시에 한인노인상조회와 같은 단체가 있어 어르신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라며 "예산 삭감으로 존폐위기에 처해있는 노인과 청소년 프로그램의 지원을 위해 시의원으로서 시정 그리고 시청과 목소리를 높여 싸울 것"이라며 말했다.

한편 평등한 음식과 맥주로 식사를 마친 후에는 가수 김진희씨와 KBS 주부 대상 수상자 삼인숙씨가 동계 아가씨를 비롯한 노래를 부르고, 노인들은 연인인 형희악단의 반주로 노래자랑을 하는 등 뉴욕의 한인 노인들이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정대희 기자) dhjeang@sfgusa.com



뉴욕한인노인상조회 주최 2002 구경경로대잔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세게일보 2002년 2월 23일자

기록은 깨지게 마련이다. 1996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구경 경로잔치를 개최한 임형빈 회장은 이날 기록적으로 1,000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의 잔치를 벌여 한국인의 자랑스러운 전통인 충효정신을 빛냈다. 이날 조형일 총영사와 장 리우 시의원 등 뉴욕 한인사회 인사들과 귀빈들이 대거 참석하여 노인들을 위로하였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게 된 이유

(2016년 6월 네이버 블로거 인터뷰 기사 중에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기 전에는 교편생활을 했어. 국민학교 여러 군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최종적으로 서대문 학교에 있었지. 그러다가 6·25전쟁에 참전해서 중위로 제대했는데 덕분에 무공훈장도 받았지. 그리고 대한통운에서 과장 그리고 나중에는 직영 장으로 지내다가 딸의 초청으로 81년도에 미국을 오게 됐지.

미국에 처음 와서 보니 Flushing에 비교적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 나름 Korea Town같이 보였지. 문제는 노인들이었어. 노인들이 집에만 있을 수 없으니 공원에 나가 삼삼오오 모여 있더라고.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노인회를 한국의 경로당마냥 하면 좋겠다 하여 노인회를 맨 처음 설립했지. 노인들이 사방팔방 모여 장기랑 바둑도 두고 식사도 같이 하고 우리가 생활영어 강습도 제공하니 이게 정치인들이 무시할 수 없는 큰 조직이 된 거지.

그래서 뉴욕 한인선거회, Flushing 한인선거회, 지역 정치 선거 때에 늘 찾아와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도 들어왔지. 그렇게 노인들을 위해 활동을 하다 보니 노인들이 나중

한국일보 2001년 10월 14일자

"이젠 미국을 돕자"

본보·한인회·평통 '구호품·성금모으기' 캠페인

뉴욕평통 5,000달러·한빛은행 3,200달러
노인상조회 회장·부회장 1,000달러
최영태(한인회총 관리위원장) 1,000달러

알트루이트드 원대 특사... (text continues with details of the campaign and donations)

한인노인상조회 임형빈 회장

한인노인상조회 임형빈 회장은 "제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나?' '회장이 떠나면 앞으로 운영이 가능하냐?' 는 등의 문의가 잇따랐다"며 "이제 상조회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기반이 잘 닦여 있고 후진 양성을 위해 물러나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98년 불과 수심명으로 시작했던 노인상조회는 임회장이 초대부터 6년간 회장을 맡은 동안 A조 1,200명, B조 800명 등 총 회원수가 2,000명에 이르는 뉴욕 지역 최대 한인 노인 단체로 성장했다.

회원이 사망했을 때 같은 조의 회원들이 각각 10달러씩 부조, 경제적 능력이 없는 회원들이라도 장례철자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한국일보 A5 6/10 2002

"후진 위해 물러나기로 결심"

한인노인상조회 임형빈 회장

경희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임회장은 81년 미국으로 와서 플러싱 노인회장, 대주목지구 한인상목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노인문제상담센터 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순복음뉴욕교회 이브라함선교회장, 플러싱 경로당대표, 민주사회협회사사고문 등 78세의 고령이 믿기지 않을 만큼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2000년에는 노인들의 사회복지와 권익신장에 많은 노력을 펼친 공로로 인정돼 제1회 '보스니아' 시니어 지도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각종 노인 관련 공로패와 많은 지역 봉사상을 수상했다.

임회장은 "비록 회장직은 물러나지만 명예회장으로 임원회의나 이사회에 계속 참가해 상조회 발전에 미력이나마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며 "오는 18일 서울를 떠나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리는 상조회장 취임식에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라며 신임 상목회장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대희 기자) jraun@koreatimes.com

한국일보 2002년 6월 10일자

2002년 5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illegible]

unity	중앙일보	2002년 8월26일 월요일	A-5
-------	------	-----------------	-----

노인상조회 추석맞이 고국방문

하와이 경유 등 3개조로 출발

뉴욕한인노인상조회(회장 심윤석)가 오는 9월 "추석맞이 고국방문" 행사를 실시한다.

상조회는 회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보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매년 이 행사를 갖고 있다.

올해 행사는 A, B, C 조로 나뉘어 진행된다.

A 조는 하와이 경유 고국 방문(9월9일 출발·3만4천1천1백96원), B 조는 충청·전라·남해안·함라수도 관광(9월11일 출발·5만5천5백1천1백20달러), C 조는 하와이·충청·전라·남해안·러리수도 관광(7만8천1천5백30달러)으로 되어있다.

하와이 경유 고국 방문은 하와이 시애틀로부터 주룽바 행사, 아롤리나 공연, 대왕 봉산, 카네히메 하, 오후루신 일주, 린속촌 관광 등으로 꾸며지며 하와이 일정이 끝나면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해선다.

충청·전라·남해안·러리수도 관광은 인천, 부여, 전주, 광주, 지리산, 제주, 러리수도, 부산 등을 순회하며 주요 관광지들을 방문한다.

주요 방문지는 해수온천, 백사장, 고잔사, 너화포, 금강댐, 판한루, 당악 죽 박물관, 순창 고죽장 마을, 쌍계사, 청매실명승지, 낙안읍성, 보성산 마을, 남태평양을 거친다.

심 회장은 "추석맞이 고국방문 상조회 이사장과 최귀향 부회장을 임원들과 함께 본사를 방문하여 행사를 홍보했다."

심 회장은 "추석맞이 고국방문행사는 상조회가 매년 회원들께 위해 심혈을 기울여 실시하고 있는 행사"라며 "이번 고국 방문에도 많은 회원들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준호 기자



뉴욕한인노인상조회 심윤석 회장(가운데)과 배병수 이사장(왼쪽), 최귀향 부회장이 23일 고려사로 행사 홍보를 위한 사진을 촬영했다.

Vol. 15 Issue 3925 http://www.dongausa.com 2003년 9월 6일(토) The Donga Daily New

필라한노인 상호회 가입 늘어

뉴욕한노인상조회 필라 진출, 회원들 모집에 상당수 호응

춘천을 대표 노래방을 할 수 있는 상호회 가입하는 한인 노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현재 필라지역에는 자체적인 상호회는 없고 뉴욕에 본부를 둔 뉴욕한노인상조회가 지난 8월부터 필라에 진출,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다. 지난 3개월간 뉴욕한노인상조회 가입한 필라지역 노인들은 80여명에 이른 다.

뉴욕한노인상조회는 가입비 15달러에다 연회비 30달러를 내고 회원 가입시 조가금 10달러씩을 내면 본인이 4명 정도 원금 15만달러를 유류에 게 지급한다. 자작곡은 펜실베이니아주와 뉴저지주, 뉴욕주, 코네티컷주에서 거주하는 55~77세의 신체건강한 원금이 대상이 며 79살로부터 수월 이상까 부터 상호금을 받는 가입한다. 가입비도 사망시 조가금 10달러

받는다. 또 1년에 한차례 무료 관광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춘천으로 춘천이 공례를 치를 수 있는 특권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필라 필라지역 한인 노인들이 대거 가입하고 있다. 이에 필라지역 뉴욕한노인상조회는 일제히 필라 회원들에게 뉴욕 관광을 통해 뉴욕한노인상조회를 방문, 실용회 회장으로 브리핑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필라지역 회원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필라지역 회원 모집을 하고 있는 실용수(전 한국노인회)는 "가입자들이 집소문을 내지 않는다면 회원이 가입했다"며 "언제까지 200여명 정도 열이면 가입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상호회에 가입한 한 한인 은 "그동안 자살충격에 제대로 유산도 못 남겨주었는데 죽을 때 장례비 부담까지 내

는 것이 부담스러워 장례비를 지급한다는 생각에서 상호회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가입한 상호회 가입 회원들이 늘어나면서 필라지역에서는 또 다른 상호회기 결성할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한노인상조회는 최근 필라 등 타지역에서도 회원이 늘어나면서 상호회 열정을 이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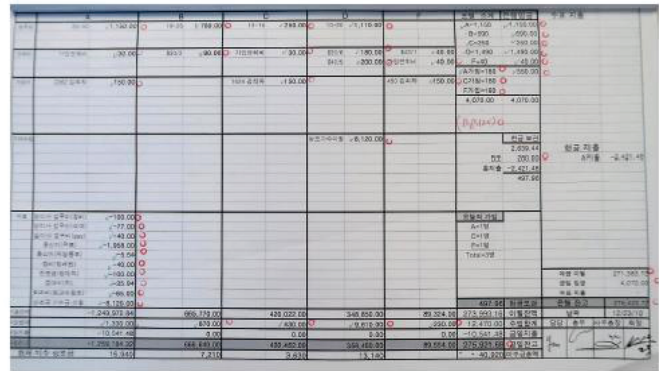
는 것이 부담스러워 장례비를 지급한다는 생각에서 상호회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가입한 상호회 가입 회원들이 늘어나면서 필라지역에서는 또 다른 상호회기 결성할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한노인상조회는 최근 필라 등 타지역에서도 회원이 늘어나면서 상호회 열정을 이룩하

상조회에 가입을 원하는 동포들이 늘어나면서 상조회는 필라델피아 지역에 진출하여 회원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이진수 기자〉

김진형 8대 회장

재임기간:

2010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상조회 설립 후부터 상조회의 살림을 도맡아 온 김영주 총장은 설립 시부터 상조회 사무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여 2011년 6월 퇴직 시까지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헌신적으로 일한 상조회의 살아 있는 역사이다. 후임으로 입사한 허도행 사무총장에게 업무를 인계하고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며 그동안 애환을 같이하였던 수많은 회원들과 작별하는 아쉬운 마음을 연보에 담았다.



정들었던 상조회를 떠나며 기념촬영을 하였다. 좌로부터 직원 안경숙, 김선, 강옥숙 이사, 김영주 총장, 정효숙이사, 직원 유현순, 김진형 회장

뉴욕한인노인상조회 김진형 회장, 나눔의 집 후원금 :



2009년 10월 30일 이사회는 김진형 이사를 제8대 회장으로, 김종식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함으로써 김 회장과 김 이사장은 2010년 1월 1일부로 공식 취임을 하였다. 제8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진형 회장은 1월 28일 첫 번째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신



상조회는 2011년 5월부터 7월까지 본회 회의실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이틀씩 무료 영정사진 촬영행사를 하였다. 2007년 8월 최하규 회장 재임시 1,000여 명의 회원에게 무료 영정사진 촬영을 실시한 후 4년 만에 다시 회의실에 촬영 장치를 완벽하게 갖추고 하루 수십 명의 회원이 촬영을 하여 2개월간 총 503명이 사진을 찍었다.



상조회 가입 한인 노인 부쩍 늘어

2011. 1. 21(금)

한인 노인들의 장례 준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면서 장례비를 지원하고 뒷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각종 상조회에 가입하는 한인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한인노인상조회(회장 김진형)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상조회에 가입한 회원은 총 6,979명으로 사망자와 제명자, 편입자를 제외하면 5,472명의 실존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 코로나 경로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궁화상조회의 경우도 뒷자리를 미리 분양할 수

김동식 9대 회장

재임기간:

2013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조별 대통합 이룩

김동식 회장은 취임 후부터 상조회의 오랜 숙원이던 조별 통합을 이룩하기 위하여 자료 검토와 연구를 거듭하면서 조별 통합으로 인한 불합리한 요소를 배제하고 모든 회원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표에서 보는 “조별 통합에 따른 상조금 지급 및 납부제도 변경을 예고하는 안내문”을 작성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문을 보냈다. 조별 통합은 모든 회원의 평등한 상조금 수령과 평등한 조의금 납부이다. 평

업무 전산화 완료

업무 전산화는 또 하나의 상조회 숙제였다. 회원이 늘어나면서 5개 조를 편성하여 관리하는 직원들은 아래 사진의 장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1개 조당 1,500여 명 혹은 1,200여 명의 회원 명단을 일일이 수기로 작성하였다. 월별로 입출금 내역을 회원대장에 손으로 기록하여 마감시간에 맞추어 은행 입금 전표도 수기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간혹 착오도 발생하였다. 회원이 적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이미 6천 명의 회원에

사회 2015년 9월 25일 금요일 A3

뉴욕한인노인상조회가 주최한 추석맞이 불우이웃돕기 쌀 나눔 행사에서 쌀을 전달받은 단체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추석맞이 불우이웃돕기 쌀 나눔 행사’
노인상조회, 20여 자선단체에 1,500포 전달

한국일보 후원
뉴욕한인노인상조회(회장 김동식)가 민족 대명절인 추석(9월)을 앞두고 ‘제1회 추석맞이 불우이웃돕기 쌀 나눔’ 행사를 열었다. 상조회는 한국일보 후원으로 24일 켄즈 플라자 소재 상조회 사무실에서 노숙자와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있는 사랑의 집, 주님의 식탁 교회, 오프존 구제센터 등 20여개 자선단체에 2주간에 걸쳐 상당의 쌀 1,500포를 전달했다. 상조회에 따르면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상조회는 제미정 의사 등 각계 각층의 열정과 단체, 개인의 후원이 겹

타운&피플 A4 한국일보 2015년 6월 17일 수요일

“복지·법률 등 유익한 정보 제공”
뉴욕한인노인상조회 김동식 회장

“어려운 여건 생활 속 한인 노인들의 불편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한인노인상조회(회장 김동식)가 각종 복지 및 법률 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김동식(사진) 회장은 “한인 노인들의 유권자 등록, 시민권 신청, 무료 법률상담, 사회보장서비스, 미화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한인들의 많은 이용과 참여를 당부했다. 상조회는 매월 셋째 주 화요일마다 노인들에게 유익한 상조금, 유언 작성법, 의료 보험인정 및 가정폭력 상담, 민법 상담 등 각종 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는 무료 매디케어, 매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노인 아파트 신청 등 폭도 도와주고 있다. 매월 넷째 주 화요일에는 무료 시민권 신청 상담 및 태

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무료 상담 및 각종 서비스는 플라자에 위치한 뉴욕한인노인상조회 사무실(35-06 레인 스트리트)에서 해당 일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김 회장은 “올해는 10월 중에 특별히 장례절차, 죽음의 공포 해소, 치매 예방 등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어 12월에는 한인 자녀들에게 장학금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조회원 가운데 998인 6,000여명이 장학금을 가진 시민권자”라는 김 회장은 “한인들의 정치·사회적 참여를 위해 선거 때마다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할 것을 권유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상조회원을 중심으로 한 유권자 훈련 회의 구성도 현재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조회는 1969년 설립 이래 19년간 한인 9,000여명이 가입해 현재 6,400여명의 실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무상조의 미네르모 회원 사망시 조의금을 유가족에게 전달하고 있다. ▲문의: 718-762-3515 (이광하 기자)



김동식 회장에게 노인상조회의 날로 선포한 선언문을 수여하였다.

최준홍 10대 회장

재임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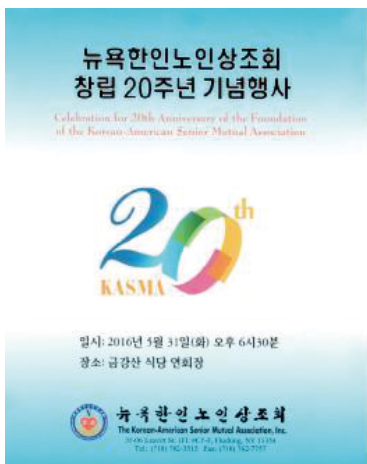
2016년 1월 1일 - 2016년 7월 25일



설립 20주년을 맞는 상조회는 20년간 실로 눈부신 발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총 9천5백여 명이 가입하였고 그간의 사망자 1천8백여 명의 유족에게 지급한 상조금은 2천2백여 만 불에 달했다. 2016년 5월 31일 금강산 연회장에서 열린



최 회장은 8개월 남짓 재임하는 동안 상조회 설립 2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주관하고 한인 노인사회에 기여한 봉사활동을 인정받아 김영부 본회 감사와 함께 친한과 찰스 랭글 연방하원의원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터(원장 미셀 임)에 11일 전달됐다. 9일 별세한 고인의 장례식

은 이달 21일 오후 6시 중앙장의사에서 새희망센터와 중앙장 의사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

▲문의: 718-661-6899

전혜병 11대 회장

재임기간:

2016년 7월 26일 - 2018년 12월 31일



신임 회장 및 이사진을 선출하고 이사진들과 기념촬영을 하였다. 왼쪽부터 박성술·성원 이사, 김영부 감사, 한영각·배광수 이사, 전혜병 회장, 나윤표 이사, 김석화 이사, 송영길·하영주·이문성 임진남 이사.



그랜드 마더스 러브는 퀸즈 북부경찰서 산하 불우이웃돕기 기구에서 후원하고 있는 할머니가 손주를 돌보는 어려운 가정으로 이루어진 단체이다. 상조회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개최된 그랜드 마더스 러브를 위한 행사에 전혜병 회장이 참석하여 쌀과 터키를 기증하고 할머니들에게 장미꽃을 달아주었다.



상조회의 정신은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서로 돕고 사랑을 나누는 친목단체이다.

야외로 나들이를 가자는 회원들의 성화에 전회장은 매년 나들이 행사를 약속하고 룬우드가든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소외된 이웃에 따뜻한 온정을...

뉴욕한인노인상조회, 추석맞이 불우이웃돕기 쌀 나눔 행사
한국일보 후원 ... 9월20일까지 모금활동 후 자선단체 선정



23일 추석맞이 쌀나눔 행사 홍보차 본보를 방문한 뉴욕한인노인상조회 허도행(왼쪽부터) 사무총장, 나윤표 부이사장, 전해병 회장, 배광수 수석부회장.

뉴욕한인노인상조회(회장 전해병)가 올해도 추석맞이 불우이웃돕기 쌀 나눔 행사를 전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쌀 나눔 행사는 오는 9월20일까지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를 상대로 후원 모금활동을 펼

쳐 한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쓸쓸히 보내는 노숙자와 불우 이웃들을 돌보고 있는 한인 자선 단체들을 선정해 쌀을 배포하게 된다.

한국일보 후원으로 진행돼 온 이 행사를 통해 지난해까지 자선 단체 25

곳에 7만달러 상당의 쌀 3만2,000포가 전달된 바 있다.

올해는 노숙자와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있는 뉴욕나눔의 집, 농아인교회, 뉴욕밀알선교단 등 뉴욕 일원 20여개 단체를 비롯,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2만 달러 상당의 쌀 1,500포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와함께 한인사회 뿐만 아니라 타인종 커뮤니티의 자선 단체들도 선정해 쌀을 증정한다는 계획이다.

전해병 회장은 23일 임원진들과 본보를 방문한 자리에서 "쌀 나눔을 통해 전해질 한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될 것"이라며 한인사회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지훈 기자>

▶후원금 보낼 곳: 'KASMA' 35-06 Leavitt St. #CF-F Flushing, NY 11354 (수표는 Pay to: KASMA로 기재하고 메모란에 "Donation"이라고 기입) 문의 718-762-3515

20년사를 펴내며...



뉴욕한인노인상조회가 첫발을 내딛던 1996년은 1970년 이민 초기의 어려움을 딛고 선 동포들이 생업의 단단한 뿌리를 내리면서 2세 교육에 전념하던 시기입니다. 뉴욕한인회, 뉴욕한인봉사센터, 뉴욕상록회 등 한인 단체의 성장 시기에 뜻있는 선배들이 장례문화의 혁신을 시도하여 만든 단체가 노인상조회입니다.

본인이 목사로서 오랜 기간 뉴욕의 교회협의회, 목사회 등에 관여하면서 노인상조회를 비롯한 한인 단체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최근 상조회의 이사로 영입되어 20년사 출판위원장의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귀중한 책 발간하는 데 저를 믿고 출판부터 감수까지를 부탁하신 회장님, 이사장님 그리고 이사님들의 신뢰에 감사하며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이민 선배들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들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위하여 모범이 되는 행동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은 상조회를 통해 그분들의 존경받는 삶을 성취하였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상조회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20년 묵은 자료를 구석구석에서 찾아내 이 책을 쓴 허도행 사무총장은 14년 전인 2003년에 이민 와서 그해 뉴욕 목사회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할 때부터 잘 알고 지내던 문인입니다. 경복고 시절부터 글쓰기를 즐겨하였으나 이공계로 진학하는 바람에 문학의 꿈을 접었으나 한국에서 조기 은퇴 후 미국으로 이민하여 한인봉사센터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꾸

집필 후기...



씨앗은 봄에 뿌려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는 데는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짧다면 짧은 상조회 20년사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망설이던 차에 오늘의 상조회가 있기까지의 소중한 기록은 후세를 위하여 필요할 것이라는 몇 분 안 되는 전 회장, 전 이사님들의 작은 소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생존해 계실 때 역사의 증언을 듣고 생생한 기록을 남겨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썼습니다.

무슨 이야기든지 처음 이야기는 소중합니다. 20년의 짧은 역사이지만 그때만 해도 60, 70대의 젊은이(들)이 열정과 기개를 갖고 머리를 맞고 고심 끝에 만들어낸 노인상조회의 처음 이야기는 더욱 소중합니다. 이분들은 살아 있는 상조회의 역사입니다. 그 젊었던 분들이 이제 80, 90세를 넘으셨습니다. 이 책을 준비하는 가운데 새로운 착상이 떠오르면 잊지 않으려고 자다가도 일어나 메모했습니다. 상조회의 사무총장이 라는 어깨가 무거운 직책을 맡아 일한 지 어언 7년이 흘렀습니다. 상조회 주 업무를 처리하면서 틈틈이 시간을 내어 집필을 마치는 데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구석구석 묵은 자료를 찾아내고 어른들께 귀찮으리 만큼 여쭙고 또 여쭙었습니다. 역사는 더하거나 빼는 것도 없고 엄연한 사실 그 자체를 기록하여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썼습니다. 역



20년사 출판기념회 및 송년회

Commemorative Conference for Publication of 20 Years History & Year-end Party

2017년 12월 18일

뉴욕한인노인상조회

The New York Korean Senior Citizens Association, Inc. (NYKSCA)

뉴욕한인노인상조회, 20년사 출판기념회 · 송년회

뉴욕한인노인상조회(회장 전혜병)는 18일 컨즈 플러스 금강산에서 20년사 출판기념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100여명의 한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함께 상조회의 20년을 되돌아보며 한 해를 마무리했다.

이지훈 기자

우리 동포들이 서로 돕는 상부상조 정신을 이어가는 고귀한 뉴욕노인상조회의 지나간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단순히 과거를 보관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재미동포들 존재의 흔적을 미래로 이어받게하는 의무이자 책임이다. 역사는 흘러가는 시간속에 쉽게 사라지지만 책에 남겨진 기록은 시간의 흐름을 넘어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기는 한 시대를 살아낸, 그리고 삶의 지혜를 남겨주는 사랑의 행위이다.

기록은 미래를 향해 건너는 징검다리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전혜병회장은 재임기간동안 상조회의 정체성을 영원히 남기려는 노력으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20년의 기록을 남기려는 결심을 하였고 동포사회의 앞날을 내다보며 허도행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동포사회의 앞날을 내다보며 20년사를 집필하도록 지시하였다.

기록이 있는곳에 기억이 있고 기억이 있는곳에 삶이 있다. 그 삶이 이어질때에 우리 상조회 역사도 살아숨쉴것이다

노인상조회 회원 1만명 돌파

설립 22년4개월 만에... '1만 번째 회원가입 축하행사' 유대원씨 "가입과 동시에 행운 얻어 기뻐"

뉴욕한인노인상조회(회장 전혜병)가 회원수 1만명 시대를 맞았다. 상조회는 30일 플러스 사무실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만 번째 회원가입 축하행사'를 열고 지난 23일 1만 번째 회원이 된 유대원씨에게 정관장 홍삼세트, 한양마트에서 제공한 고급 전기 압력밥솥과 임행빈 상조회 명예회장이 증정한 보약 1세 상품을 기념패와 함께 증정했다.

덕분에 1만 번째 회원가입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상조회는 장학금 지급 행사, 불우이웃 살 나눔 행사 등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매년 펼치고 있으니 회원들을 비롯해 많은 한인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넛소카운티 프리프리에 거주하는 유씨는 "10여 년 전 상조회에 가입한 누님을 통해 평소에도 상조회 활동에 관심이 많았는데, 가입과 함께 이런 행운을 얻게 돼 더 없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지훈 기자



30일 축하행사에서 1만 번째 회원인 유대원씨를 오른쪽에서 세 번째와 상조회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뉴욕한인노인상조회 장학금 수여식
뉴욕한인노인상조회(회장 전혜병)는 28일 플러스 상조회 회의실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신장된 12학년 학생 8명에게 각각 100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생들은 대학원학 여장자를 준 가정환경이 어려운 성적우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시를 거쳐 (사단법인-뉴욕한인노인상조회) 선정했다.

상조회 설립 22년 4개월만에 드디어 가입회원 1만명이라는 기록을 달성하였다. 1만번째 회원이 된 유대원씨에게 기념패와 축하상품을 전달하였으며 다수의 상조회 임직원이 축하의 자리에 참석하였다.

배광수 12대 회장

재임기간:

2019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A8
한국일보
2018년 12월 29일 토요일
타운 & 피플

27일 플러싱 글래스인 식당에서 열린 뉴욕한인노인상조회 이취임식에서 배광수(오른쪽)가 여섯 번째부터 11인 회장, 전혜병(왼쪽) 회장 등 상조회 관계자와 참석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사명감 갖고 상조회 이끌 것”

뉴욕한인노인상조회 신구회장 이·취임식
제12대 배광수 신임회장 취임...내달부터 3년간 임기

배광수 신임회장이 이끄는 12대 뉴욕한인노인상조회가 출범했다. 수석부회장을 지낸 배 신임회장은 27일 플러싱 글래스인 식당에서 열린 이취임식에서 제1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행사에는 상조회 및 한인 단체 관계자 170여명이 참석해 전혜병 11대 회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배 신임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배 신임 회장은 “나라의 미래는 노인에게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회장직에 임하겠다”며 “한인 노인들의 유권자등록, 사회복지 서비스, 무료 법률 상담 등 상조회가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들도 잘 이어받아 운영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전혜병 직전 회장은 “지난 3년 간 상조회를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

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며 “배광수 회장과 나윤표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감사와 직원들이 상조회를 변함없이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찰스 윤 뉴욕한인회 이사장, 김윤경 동포담당 영사, 김광석 전 뉴욕한인봉사센터(KCS) 회장 등이 축사를 했고 여러 한인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조회의 새 출발을 응원했다.

한편, 배 신임 회장은 내년 1월부터 3년간 상조회를 이끌게 된다.

(이진훈 기자)
jhoon@koreatimes.com

제11대 전혜병 회장으로 부터 깃발을 이어받은 12대 배광수 회장(사진 오른쪽)의 취임 일성은 상조회에 대한 사명감과 회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향상이다. 배회장은 “죽어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자신의 용돈을 모아 장례비를 마련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려는 노력으로 초고령회원들의 회비 면제폭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8
한국일보
2019년 2월 21일 목요일
타운&피플

뉴욕한인상조회 하도행원(목부대) 사무총장과 김성원 수석부회장, 배광수 회장, 나윤표 이사장, 황재현 수석 부이사장 등 신임임행부가 20일 본보를 방문해 자리를 함께 했다.

“회원위한 다양한 서비스 확대”

뉴욕한인상조회 신임임행부 본보 방문

무연고자 장례비 후원·장학사업 등 계획

“회원들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뉴욕한인상조회 배광수 회장과 김성원 수석부회장, 나윤표 이사장, 황재현 수석이사장 등 지난 1월부터 임기에 들어간 상조회 신임 집행부가 20일 본보를 방문해 회원 혜택 및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 회장은 “죽어서도 자녀들에게 부

고 말했다.

나 이사장도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확대하고, 쓸쓸한 명절을 보내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통해 온정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

한편 지난 1996년에 창립된 뉴욕한인상조회는 지난해 1만 번째 회원이 탄생하는 등 발전하는 가운데 현재는 200만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단체로 성장했다.

(김홍기 기자)

한국일보
2019년 4월 25일 목요일

뉴욕한인노인상조회가 24일 '2019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상조회 관계자들과 수상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사진제공=뉴욕한인상조회)

뉴욕한인노인상조회 '2019 장학금 수여식' 고교생 14명에 총 1만4,000달러 전달

뉴욕한인노인상조회(회장 배광수)가 24일 '2019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모두 14명의 고교생들에게 모두 1만 4,000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올해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카이아 코르테즈·멜라니 살토스·자비어 레이아·발지트 싱(플러싱 고교)과 류사라(팜지코고), 전유진(헛지필드 메모리얼 고교), 에밀리 아코스타(린드 고교), 이사벨라 박(펠리세이즈파크 고교), 김선우(제리얼 고교), 테스리 가레노(통아일랜드 시티 고교), 엘리자베스

박(프랭크 시나트라 스쿨 오브 아트), 김유리(켈렌버그 메모리얼 고교), 김한나(벤자민 카도조 고교), 권재현(프랜시스 루이스 고교) 등이다. 1인당 1,000달러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배광수 뉴욕한인노인상조회장은 이날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는 인물로 성장해 달라”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김홍기 기자)
hikim@koreatimes.com

배회장은 한인뿐만 아니라 다민족들이 모여사는 이나라의 타민족 소외계층을 돕는데도 눈을 돌렸다. 본회 이웃에 위치한 후리싱 고등학교의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추천받아 취임 첫해 4월 본회 회원자녀들을 비롯한 총14명 학생에게 1만4천불의 장학금을 지급행사를 가졌다. 본 장학금 지급 행사는 2016년에 시작하여 제4회째 행사이다.



뉴욕한인노인상조회 펠팍 사무실 개설 뉴욕한인노인상조회회장 배광수는 3일 뉴저지 펠팍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뉴저지 지역 회원들의 가입 및 수납업무를 개시했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순환익 뉴저지한인회장, 장동신 뉴저지교협 회장, 윤석래 뉴저지장로연합회장 등 40여명의 한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무실 개설을 축하했다. 문의 718-762-3515 (사진제공=뉴욕한인노인상조회)

상조회는 미국 전역을 비롯한 한국에도 회원들이 살고있고 적은 숫자이지만 캐나다, 남미 등으로 이주한 동포들도 있다. 뉴욕을 주축으로 뉴저지에도 1천명이 넘는 회원들이 분포되어있어 상조금 납부등 긴밀한 연락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뉴저지 펠리세이드파크에 위치한 Senior Solution Agency 의료보험사(대표 어수정 201-450-2195) 사무실에서 회비 수납, 회원을 위한 의료보험 상담등을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어 뉴저지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취임 후 1년만인 2020년 봄, 비극적인 팬데믹 사태가 시작되고 회원들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는 상조회의 시련이 시작되었다. 한달 평균 20-30명 내외이던 사망자가 평소보다 4배 상승한 100여명으로 늘어나 회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상조회의 장례비 지급 준비금도 고갈되었다. 당장 장례를 위하여 장례비가 필요한 유가족들을 위하여 배회장은 은행 대출을 결심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친후 장례비 용도로는 대출이 힘들던 시절에 뉴저지에 본부를 둔 노아은행(현 Bank of Princeton)에서 적은 이자로 70만불의 대출을 받아 4개월동안 사망한 400여명의 회원 유가족들에게 장례비를 지급하여 유족들은 빠른 시일내에 무사히 장례를 치루게 되었다. 대출금은 당시 6천8여명의 회원들이 적극 협조하여 6개월만에 전액 상환하였고 힘들었던 모든 과정을 견뎌낸 배광수 회장의 결단과 수백명의 회원 유가족들의 장례를 돕기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여 헌신한 직원들의 노고, 그리고 상조회 회원들의 눈물겨운 협조와 노아은행의 도움은 상조회 역사에 길이 남게되었다.



한인노인상조회 창립 25주년 기념식 뉴욕한인노인상조회회장 배광수는 지난 3일 퀸즈 플렉싱 삼원각식당에서 창립 25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상조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사태를 고려해 전직 회장, 회임 이사, 현 이사진들을 초청한 가운데 이날 행사를 치렀으며 임형빈 초대 회장과 최학규 제3대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제공=뉴욕한인노인상조회)



상조회는 2021년 5월 창립 25주년을 맞으므로써 청년기로서의 상조회 도약을 다짐하는 해로 삼았다. 이 자리에는 임형빈 초대회장과 최학규 3대회장(작고)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설립 초창기 회장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성술 13대 회장

재임기간:

2022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제12대 배광수회장으로 부터 깃발을 이어받은 13대 박성술회장(사진 왼쪽)의 취임 일성은 장례문화 개선과 상조회 회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향상이다. 특히 상조회는 경제적 부담을 갖고있는 회원들의 장례비 절감을 통해 기존 장례문화 개선 사업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무연고자 장례비용 지원, 쌀 나눔 행사 등의 이웃을 돕는 일에 주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임하는 배광수 회장과 나윤표 이사장의 후임으로 박성술 회장과 김영부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였다. 박회장은 이, 취임식을 거행하는 자리에서 전임 회장, 이사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회원 모집과 회원들에 대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였다.

“한인사회 귀감되는 단체로 이끌겠다”

뉴욕한인노인상조회
창립 27주년 기념행사

뉴욕한인노인상조회(회장 박성술)가 창립 27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고 회원들에게 감사사를 전했다.
1일 폴리스 산수관(산2 4층)에서 열린 행사에는 상조회 임원, 이사 및 한인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성술 회장이 나서 상조회가 행해온 어려움을 듣고 27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를 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박 회장은 “상조회는 먼저 세상을 떠난 회원들의 유족한 장례 가정을 위해 장례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한인들이 타민족을 돕는 상부상조 정신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며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고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그 한 상조회에 지원을 보내는 분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한인사회의 귀감이 되는 단체로 이끌어가고자”고 말했다.
허도행 사무총장은 “현재 상조회는 지난해 신규 가입한 회원 259명을 포함해 6,347명의 회원이 가입된 상태”라며 “회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소절이거 초상 사비보장 서비스, 장례지, 통구이웃돕기 쌀 나눔 행사 등을 열고 회원 복지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소와계을 돕기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조회는 1996년 설립 이후 27년 동안 별세한 회원 3,600명에게 4,800만달러의 장례비를 지급했다. 상조회는 웹사이트(hassany.com)를 통해 가입 절차 및 각종 활동 소식을 알리고 있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진은 기자)



뉴욕노인상조회 창립 27주년 기념식 개최 뉴욕노인상조회(회장 박성술)는 창립 27주년을 맞아 1일 산수관 산2 4층에서 내·외빈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기념행사를 가졌다. 임형민 초대회장은 축사에서 27년만에 1만1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가입해 현재 회원이 6000명이 넘는다는 감개무량하다고 말했고, 허도행 사무총장은 상조회관 건립 등 비전을 제시했다. [뉴욕노인상조회]

창립 27주년을 맞아 상조회 임원, 이사 및 한인단체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회장은 먼저 세상을 떠난 회원들의 엄숙한 장례를 위해 장례비 마련에 그치지 않고 한인들이 타민족들도 돕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소감을 말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여러 단체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인사회 장례문화 개선 나선다

뉴욕한인노인상조회, 장례비용 절감 등 서비스 확대 추진
무연고자 장례 지원 장학금 수여 등 이웃돕기 사업도 지속

뉴욕한인노인상조회가 회원들의 장례비용 절감 노력에 힘써 한인사회의 장례문화 개선에 나선다.
박성술 회장은 “뉴욕한인노인상조회 창립 27주년을 맞아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장례비용 절감 노력에 힘써 한인사회의 장례문화 개선에 나선다”며 “장례비용 절감 노력에 힘써 한인사회의 장례문화 개선에 나선다”고 말했다.
특히 상조회는 앞으로 경제의 부담을 줄이고 있는 회원들의 장례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 장례문화 개선 사업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무연고자 장

례비용 지원 장학금 수여, 쌀 나눔 행사 등 한인사회 이웃을 돕는 사업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박 회장은 “올해 상조회 설립 후 25년 동안 단란하게 이끌어 온 전직 임원, 원로 10여명의 상조회 회원들에게 감사 드린다”면서 “상조회 회장직이 생애 마지막 봉사활동이라는 생각으로 상조회의 정원을 이어가며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잘 운영하며 회원들의 가족에 부응하는 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718-762-3515



뉴욕한인노인상조회 임원(오른쪽부터) 수석 부이사장, 김명부 이사장, 박성술 회장, 허도행 사무총장이 본보를 방문해 자리를 함께 했다.

뉴욕한인노인상조회, 뉴욕교협에 튀르키예/시리아 지진구호 성금 전달

뉴욕한인노인상조회(회장 박성술)가 6일 뉴욕지구교회협의회(회장 이준성 목사)에 튀르키예/시리아 지진구호 성금을 전달했다.

뉴욕교협은 현재 튀르키예/시리아 지진구호 성금 모금 운동을 펴고 있다. 뉴욕교협 회장 이준성 목사는 “구호 헌금을 해 주신 뉴욕한인노인상조회 박성술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형제 나라 터키 지진 구호 헌금 모금 행사에 동포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욕교협에 성금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수표 Pay to 란에 CKC(Church of Korea Council)라 쓰고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244-97 61 Ave. Little Neck, NY 11362로 우송하면 된다.
스뉴욕 교협 문의: (718) 279-



6일 뉴욕한인노인상조회 박성술 회장(오른쪽 두번째)이 뉴욕지구교회협의회 회장 이준성 목사(왼쪽 두번째)에게 튀르키예/시리아 지진구호 성금을 전달한 뒤 상조회 허도행 사무총장(왼쪽 끝), 교협 담당자 신현국 목사(오른쪽 끝)와 함께 기념 촬영했다. [사진 제공-뉴욕한인노인상조회]

박회장은 장례문화 개선을 통해 장례비 절감을 실현하고 무연고자 장례비 지원, 장학금 수여, 쌀 나눔행사 등 타민족을 포함한 불우이웃을 돕는 사업을 확대 지속하겠다는 포부를 재확인하였고 2023년에는 튀르키예 대지진 피해성금을 뉴욕교협을 통해 전달하였다.

상공회의소+노인상조회 등 4개단체, 합동업무협약 체결

지난4일(금요일) 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장 김성권, 뉴욕한인노인상조회(회장 박성술), 브루클린한인회(회장 박성원) 세계한인재단 백세인클럽(회장 최영배) 4개 단체는 4일 폴리스에 있는뉴욕한인노인상조회 사무실에서 합동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단체간의 교류를 통하여 회원들의 유익을 추구하여 한인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사진 제공-뉴욕한인상공회의소 사무국]



상조회는 상공회의소, 브루클린한인회, 세계한인재단 백세인클럽과의 합동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단체간의 교류를 통하여 한인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하고 합의문서를 작성하였다.

임규홍 14대 회장

재임기간:

2025년 1월 1일 -



이사회에서는 임규홍이사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이어 서경숙(승희)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하였다



모토로라와 현대그룹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 미국으로 이주한 임회장은 카톨릭 연방신용조합에 15년간 몸 담고 5년간 조합장으로 일하던 금융전문가이다. 매일 출근하면서 본회를 방문하는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주며 우리네 부모들의 자녀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새삼 깨닫고 있다고 말한다. 취임후 상조회가 곧30주년을 맞는다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30년 기념사업으로 동포들의 사랑방인 상조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꿈을 내비쳤다.



2025년 5월 별세한 전 연방 하원 찰스 랭글 의원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로 미국의 대표적 친한파 의원이었고 장장 46년간 23선의 의원직을 지키며 본 상조회와는 뗄수 없는 인연이 있는 의원이다. 한인들로 구성된 후원회를 통하여 본 상조회에 관심이 있었고 본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쌀나눔의 행사를 통하여 지역구였던 맨하탄 할렘지역 불우이웃에 쌀 나눔 제의를 받아들여 본회 이사들이 대거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고 쌀을 나누어 준 뒤 의원실에서 간담회를 가진바 있다. 그후 랭글 의원은 본회를 방문하여 상조회의 현황을 듣고 한인들의 상부상조의 정신을 새삼 들으며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상조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김동식 회장, 배다니엘 고문변호사와 사무총장 등 직원 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12월 14일을 뉴욕시 뉴욕노인상조회의의 날로 선포한바 있다.



2015년 12월 본회를 방문한 랭글 의원은 상조회를 방문하여 동포사회를 위하여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던 배 다니엘 본회 고문변호사(사진 오른쪽)를 만나 환담하면서 동포들을 위해 더욱 봉사해줄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뉴욕한인회 '장례문화 개선 캠페인' 하크네시아교회, 장례식장 제공기로

내달부터 한인 사회에 시설 개방

뉴욕한인회(회장 이명석)는 퀸즈 베이사이드 소재 하크네시아교회(담임 목사 전광성)가 오는 6월부터 교회시설을 한인사회를 위한 장례식장으로 개방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하크네시아교회는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예배실과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예배실, 250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체육관, 100대의 주차공간을 갖추고 있는데 예배실 2곳과 체육관 등을 장례식 관련시설로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장례문화 개선 캠페인'을 전개 중인 이명석 뉴욕한인회장은 "하크네시아교회가 첫 번째로 한인사회에 교회

시설을 장례식장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더 많은 한인교회들의 동참을 기대한다"며 "이번 캠페인이 장례비를 낮추는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한인 노년층에 대한 관심 확대, 특히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의 장례문제를 함께 대처해 나가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크네시아교회 전광성 담임목사는 "기독교적 사랑과 돌봄 정신을 바탕으로 당회원들이 이번 '장례문화 개선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교회를 일반인에게 장례식장으로 개방하는 것은 예민한 문제지만 장례식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예식이자 기독교적 사랑과 관심을 나눌 수 있는 자리인 만큼 당회원 모두가 마음과 뜻을 함께 해주었다"고 밝혔다.

임규홍 회장은 노년층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특히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의 장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뉴욕한인회 이명석 회장의 협조로 저렴한 가격으로 장례식을 치를수 있는 장소를 모색하던 중 하크네시아 교회 전광성 목사가 기독교적 사랑과 돌봄의 정신으로 교회 소예배실을 개방하였다. 교회를 일반인에게 장례식장으로 개방하는것은 예민한 문제이지만 장례식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예식이자 기독교적 사랑을 나눌수 있는 자리인 만큼 당회원과 성도들 모두가 뜻을 함께 해주었다고 밝혔다. 상조회는 교회와 협력해 장례절차는 물론 유가족에 최대한의 협조와 예우를 아끼지 않을 것을 천명하고 장례위원장으로 박성술 전임 회장을 선출하였다.

뉴욕한인회 장례위, 하크네시아교회에서 첫 장례식

교회측, 외부에 장례식장 첫 오픈... "한인교회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한인사회 장례문화 개선에 힘쓰고 있는 뉴욕한인회(회장 이명석)가 17일 오후 퀸즈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하크네시아교회의 소예배실에서 열린 첫 장례식에 참석했다.

이번 장례식은 뉴욕한인회 장례위원장 한영호 제일장사사 대표가 주관했으며, 하크네시아교회는 등록교인이 아닌 외부인에게 예배실을 장례식장으로 오픈한 첫 케이스이다.

기독교인이었던 고인 및 유가족은 이날 장례식을 '천국 환송예배' 형식으로 개최했으며, 이명석 회장과 권오봉 차석부회장, 장례위원장 임규홍 뉴욕노인상조회장 및 허도행 사무총장은 함께 조문(Viewing) 한 후 유가족에 위로의 건넸다.

이명석 회장은 "하크네시아교회 외에 브루클린에 위치한 뉴욕배틀교회들 비롯, 여러 한인교회들이 장례식장 오픈 뿐 아니라, 지역 한인사회 참여 및 협력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한인회측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임규홍 뉴욕노인상조회장은



한인사회 장례문화 개선에 힘쓰고 있는 뉴욕한인회가 17일 오후 퀸즈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하크네시아교회 소예배실에서 열린 첫 장례식에 참석했다. (오른쪽부터) 한영호 장례위원, 임규홍 뉴욕노인상조회장, 한기술 목사(유가족), 이명석 회장, 허도행 사무총장, 권오봉 차석부회장. (사진 제공-뉴욕한인회)

"오늘 장례식은 한인교회와 외부인에게 장례식장으로 예배실을 오픈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노년화된 한인사회에 희망이 있으려면 한인사회와 한인교회가 힘을 합쳐서 잘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배실을 외부인의 장례식장

으로 첫 오픈한 하크네시아교회 전광성 목사는 "유가족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오늘 천국환송예배를 잘 드린 것 같다. 하크네시아교회는 '세상에 빛을 발하라'는 성경말씀에 따라 지역사회에 적극 동참하면서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OF

KOREAN AMERICAN FUNERAL SUPPORT ASSOCIATION, INC.

Under Section 402 of the Not-for-Profit Corporation Law

FIRST: The name of the corporation is:

KOREAN AMERICAN FUNERAL SUPPORT ASSOCIATION, INC.

SECOND: The corporation is a corporation as defined in subparagraph (5) of paragraph (a) of Section 102 of the Not-for-Profit Corporation Law.

THIRD: The purpose for which the corporation is formed is any purpose for which corporations may be organized under the Not-for-Profit Corporation Law as a charitable corporation.

FOURTH: The corporation is not formed to engage in any activity or for any purpose requiring consent or approval of any state official, department, board, agency or other body. No consent or approval is required.

FIFTH: The corporation is a charitable corporation under Section 201 of the Not-for-Profit Corporation Law.

SIXTH: The office of the corporation is to be located in the County of Queens, State of New York.

SEVENTH: The names and addresses of the initial directors of the corporation are:

PETER K. LIM, 137-47 45TH AVENUE, #12-N, FLUSHING, NY 11355

SUNG K. KIM, 43-39 39TH PLACE, #30, SUNNYSIDE, NY 11104

DO HAENG HEO, 222-12 41ST AVENUE, BAYSIDE, NY 11361

EIGHTH: The Secretary of State is designated as agent of the corporation upon whom process against the corporation may be served. The post office address to which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mail a copy of any process against the corporation served upon the Secretary of State by personal delivery is:

KOREAN AMERICAN FUNERAL SUPPORT ASSOCIATION, INC.
35-06 LEAVITT STREET
FLUSHING, NY 11354

NINTH: The following language relates to the corporation's tax exempt status and is not a statement of purposes and powers. Consequently, this language does not expand or alter the corporation's purposes or powers set forth in paragraph THIRD.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ese articles, the Corporation shall not carry on any other activities not permitted to be carried on (a) by a charitable organization exempt from Federal income tax under section 501 (c)(3)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or the corresponding provision of any future United States Internal Revenue law) or (b) by a charitable organization contributions to which are deductible under section 170 (c)(2)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or corresponding provision of any future United States Internal Revenue law).

Said corporation is organized exclusively for charitable, religious, educational, and/or scientific purposes, including, for such purposes, the making of distributions to organizations that qualify as exempt organizations under section 501 (c)(3)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or the corresponding section of any future federal tax code.

No part of the net earnings of the corporation shall inure to the benefit of any member, trustee, director, officer of the corporation, or any private individual (except that reasonable compensation may be paid for services rendered to or for the corporation), and no member, trustee, officer of the corporation or any private individual shall be entitled to share in the distribution of any of the corporate assets on dissolution of the corporation.

No part of the activities of the corporation shall be carrying on propaganda, or otherwise attempting to influence legislation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IRC section 501(h)] or participating in, or intervening in (including the publication or distribution of statements), any political campaign on behalf of any candidates for public office.

Upon the dissolution of the organization, assets shall be distributed for one or more exempt purposes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501 (c)(3)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or corresponding section of any future federal tax code, or shall be distributed to the federal government, or to a state or local government, for a public purpose. Any such assets not disposed of shall be disposed of subject to an order of a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of the county in which the principal office of the organization is then located, exclusively for such purposes or to such organization or organizations, as said Court shall determine, which are organized and operated exclusively for such purposes.

/s/ Peter K. Lim

Peter K. Lim, Incorporator
137-47 45th Avenue, #12-N
Flushing, NY 11355

/s/ Sung K. Kim

Sung K. Kim, Incorporator
43-39 39th Place, #30
Sunnyside, NY 11104

/s/ Do Haeng Heo

Do Haeng Heo, Incorporator
222-12 41st Avenue
Bayside, NY 11361

상부상조라는 한인 특유의 서로 돕는 동포사랑의 정신으로 30년동안 기초를 닦아온 상조회는 이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경건하고, 가장 엄숙한 동포들의 장례식을 위한 상조회관 건립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장례뿐만 아니라 동포들의 사랑방으로서 동포들의 험터와 교제의 장소로 개방하여 누구나 애경사로 이용할 수 있는 상조회관 건립을 위하여 상조회는 2025년 9월18일자 미 정부의 인가로 Korean American Funeral Support Association (KAFSA)라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하였고 첫 업무를 시행하려는 단계에 있다.

상부상조 정신으로 30년... 한인사회 결속 상징

지녀사람 부모공경의 산실 뉴욕한인노인상조회

유족 한인사회에서 '심부상조'라는 알은 단순한 의덕을 넘어 제대를 짓는 정신적 유산이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온 한국인의 전통은 5,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통이요, 다민족의 추종을 불허하는 미덕이다. 이문사에서도 그 정신을 여전히 이어 있다.

1996년, 이 전통을 지키고 계승하기 위해 출범한 뉴욕한인노인상조회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으면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단단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지난 30년 세월 동안 상조회는 정례화된 단체를 넘어, 한인사회의 곁과 연대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상투상조의 정신으로 시작된 30년**

초대 임명된 회장을 비롯한 한인사 회원들도 동북아시아의 친목도와 우익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자라들'에 게 장래에 부담을 주지 않자는 취지로 상호주의를 선포했다.

1996년 5월 1일 뉴욕주와 연방정부에 정식 등록하고 매머드만체로 출범한 상호주의 설립 첫 해 7개월 동안 200명의 회원들 확보에 소중하게 출범했다 설립 요건은 상호상호, 불우 이웃들의 참여지원, 친목, 복리후생 등이다.

조카에게는 사망자가 발생하면 월급 10만원 100만원의 부조하는 방식이었으나, 기업체가 급증하면서 2014년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해 모든 회원이 동일하게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현재는 월 평균 50~70만원의 조의금을 납부하며, 이 비용은 전액 유가족에게 전달된다.

회원 수는 2018년 1만 명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5년 말 기존 노회 사망 회원은 4,500여 명 유가족에게 전달된 장례비는 총 6,000만 달러(약 860억 원)에 달한다. 이민사회에서 보기 드문 규모와 투명성이다.

- 플렉싱 중심가에 자리 잡은 '돈돈한 공동체'

강조하는 화면들의 기법으로, 조공

된 자금을 모아 창립된 지 12년이
2008년에 플리싱 35-06 Lewis S
지체 사무실을 마련했다. 현재 총자
은 220만 달러 이 중 100만 달러
유동자산으로 운영된다. 회원 사람
종래비를 선지급할 수 있는 안정적
조금 20조 원이다.

기업은 62세부터 65세 미만의 근로한 한인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비가 1달러, 연회비 40달러로 운영된다. 2011년부터는 임금률 표창자 회를 이끌어 있으며, 19명의 이사(이사장 서경숙) 감사 1명이 함께 투명한 운영을 하고 있다.

자세감사 병행 재정 투명성 확보-환인단체 모범으로 평가
팬데믹때 사망자 증가로 일사적 위기 회원을 협조로 이겨내
장해지원 외에도 알나눔- 무료 법률상담 등 실질적 지원
사랑방 취지의 상호회관 건립 목표 같아 5월29일 개최



주님의 식탁 선교회에 열을 전달하고 이준선 담임목사와 함께한 일규를 회장으로 본회의
최도형 사무총장(왼쪽)

상조회는 매년 4회의 정기이사로
열고 필요 시 수시로 회의를 소집
예산과 특별기금을 관리한다. 공인
계사 감사의 지배기사를 병행한다.

■ 권태력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공동체

2003년 한대믹은 삼조위에도 큰 격이었다. 3~6월 사이 사망자가 연의 4배인 250여 명으로 급증하면서



앞고, 상조회는 결국 모든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즉시 지급했다.

이 경험은 삼포회가 단순한 제도
아니라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국
동재임을 증명한 사건이었다.

무로 뱀류상당을 제공하고, 미국 및 한국 선거 참여를 독려하여 유권자 동원에도 힘쓰고 있다. 노인들의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는 '심화 및정화' 활동이다.

■ 사랑의 열매 나눔, 무료 법률상담, 지역사회와 함께 걷다

상조되는 장례지반에만 머물지 않는다. 매년 추수감사절이면 한국임업원과 한양마초·김민호장례원·제왕이사 병크오브프린스톤 등 후원사 그리고 회원들의 간조로 마련한 150온드 할 1,500포대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다.

수해 대상은 한민 불우어웃 뿐 아니라 땀어단 함양의 최단단체, 노자 단체 등 빈민층 공동체까지 확대되어 있다. 123쪽 아이지는 이 행사는 삼조회가 안인식화와 타민족을 있는 다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매우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

■ “요람에서 무덤까지” - 상호회관 건립의 꿈

상조회는 올해 초 뉴욕주 산하의
영리단체인 뉴욕경제지원재단을
합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목표는 '상조회론' 건립이다.
이 회관은 단순한 장례시설이 아

공공기관은 사립기업과 문화·예술 공간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가장 저밀하고 경관한 용도를 지을 수 있는 장소이자 세대가 모여 살아가는 커뮤니티 센터가 되는 편이다.

디모스 연회장에서 기념모금 갈라회
개회한다. 30주년을 맞아 백년대계
향만 첫발을 내딛는 역사적 순간이
될 전망이다.



“자녀들 배려하는 부모 마을 지키는 것이 제 사명”

● 임규홍 회장 인터뷰

*부모들의 사랑을 지키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모토로라와 현대그룹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 미국으로 이주한 임규홍 회장은 카를리 연방신용조합에서 19년간 근무하여 금융전문가로 자리 잡았다.

그는 상조회 이사로 2년간 봉사한 뒤 지난해 1월 한인상조회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지금도 매일 사무실에 출근해 노인 회원들의 맘뵈어주고 있다.



“상조화에 오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보입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살아계실 때부터 준비하

모아주는 그 사랑이 너무나 소중한
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가
할 일이고, 책임이라 생각했습니다.
일 뒤편은 30수년을 맞아 살도
간 건반을 '속한 사업으로 추진하
고 있다' '살도외관은 몸통의 예
견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간
이 될 것입니다. 무료로 개관해 공
동체의 사민방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다'

그는 "상조회가 없으므로 한인을 넘어 타민족까지 포용하는 미국 사회의 모범 단체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국 역사 속의 노인상조회



The Korean American Senior Mutual Association in American History

피오렐로 헨리 라과디아(Fiorello Henry La Guardia)는 미국의 법조인이자 정치인이다. 1930년 판사시절에 라과디아는 상점에서 빵 한덩어리를 훔치고 절도 혐의로 기소된 노인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노인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않고 방치한 책임을 물어 자신에게는 10달러를, 방청객들에게는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하여 화제를 모았다. 이때 거둬들인 벌금 10달러를 제외하고 전액을 그 노인에게 전달함으로써 노인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는 판사였다고 한다. 라과디아는 1934년부터 1945년까지 세번에 걸쳐 뉴욕시장을 역임하고 1947년 타계하였다. 그는 빈민을 도우며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명재판관으로 명성이 자자했고 훗날 그의 이름을 기려 라과디아 공항이 세워지게되었다.

라과디아 시장의 위업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서는 1992년 맨하탄 남쪽에 라과디아 플레이스 공원을 조성하고 동상 건립을 추진하게 되는데 마침 공원 인근에 살고있던 이진홍씨가 공원 조성 및 동상 건립 후원자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1994년 마침내 동상을 제막하게 되었다. 당시 루스 메신저 맨하탄 보로장은 동상 건립을 위해 애쓴 공로로 동상 제막일을 이진홍의 날로 선포하였다. 평소 노인문제에 관심이 많던 이진홍씨는 이 무렵 노인상조회가 설립된다는 소식을 듣고 한인노인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상조회 이사로 참여하여 상조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상조회 이사로 재직하면서 공원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돌보던 그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은 당시 미국과 한국 신문에 대서특필되었고 라과디아 공원 대표 알버트 맥그랫씨는 기록에 남아있던 그를 찾았으나 그는 텍사스 휴스턴으로 이주한 뒤였다. 맥그랫씨는 그해 11월 임형빈 상조회 회장을 공원으로 초청하여 이진홍씨를 대신하여 감사장을 증정하고 한인들의 봉사활동에 개한 깊은 감사를 전했으며 감사장은 곧바로 이진홍씨에게 전달되었다.

멜팅팟(Melting Pot)이란 용광로를 뜻하며 다양한 민족이 모여사는 미국사회를 묘사하는데 쓰는 말이다. 서로 다른 문화의 여러 인종, 여러 민족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곳이어서 용광로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민족이 용광로라는 한 솥에서 잘 융합하여 강한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며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낸다는 정책이론을 뜻하기도 한다. 상조회는 이미 미국이라는 용광로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 지역사회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고있다. 상조회는 미국내의 정치력 향상을 위하여 모든 회원들에게 투표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큰 호응을 얻고있다.

La Guardia served three terms as Mayor of New York City from 1934 to 1945 and passed away in 1947. He earned a reputation as an outstanding public servant and judge who supported the poor and delivered fair and compassionate judgments. In honor of his legacy, LaGuardia Airport was later named after him.

The term “Melting Pot” refers to a crucible and is commonly used to describe American society, where people of many different races and ethnic backgrounds live together. Because various cultures and nationalities coexist and blend together like metals in a melting pot, the United States is often viewed as a nation that creates strength and new cultural traditions through diversity. This idea also reflects a social and political theory emphasizing cultural integration.

553 LaGuardia Place, #260, New York, N.Y. 10012 • (212) 475-5225

Officers

Chairman: Seymour
De LaGuardia (retiree)

President:
in vacuo

Vice President:

President Elect:
Joan Lee
Joan Lee

Treasurer:
Michael G. Hall

Secretary:
Barbara Herman

Board of Directors

Mark Nelson
John Fazio
Anthony Caputo
Barbara Herman
Frank Friedman
Lionel Goldberg
Joan Lee
John Hirsch
Ellen O'Connor
Michael G. Hall
Charles Redwine
Margaret Tabor

Advisory Committee

Ellen Barish
William A. Bell Brown
Dr. Kenneth C. Brown
Alan Davidson Chai
Robert J. Cohen
George A. O'Brien (retiree)
Michael Gail
Elizabeth Katz Green
Joe Lerner
Steven D. Lerner
Viggo C. Lerner
Mrs. Joseph H. Malachuk
Dr. E. Jay Miller
Dr. E. Jay Miller
Philip Robinson
Dr. Stanley Stein
Don Taylor
Joseph Shuster
L. S. Weinberger
Yvonne Ward
Arthur Weisberg
Alan Zucker (retiree)

Joanney Jin Lee
standing beside
the statue of
Fiorello LaGuardia,
which was dedicated by
Mayor Rudolph Giuliani
October 19, 1994

Mr. Lee i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Friends of
LaGuardia Place which
erected this memorial
to one of New York City's
greatest and most beloved
mayors.

Lee's name is engraved on
a tablet behind the
statue along with the
names of other major
supporters of this
monument.

Former board member Jin Heung Lee standing in front of the statue. On the back of the statue's cornerstone, the name "Johnney Jin Lee," his English name, is clearly engraved.

100년을 바라보는 상조회의 비전

-마지막 길을 더욱 엄숙하고 경건하게 모시려는 노력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은 국가가 국민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복지 및 지원을 제공한다는 의미의 구호로 1942년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말이다.

이 말은 사회보장제도의 이상적인 목표를 상징하며, 완벽한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정책의 슬로건으로 사용되었지만 상조회는 회원들의 마지막 길을 더욱 엄숙하고 경건하게 모신다는 슬로건으로 사용하고 있다. 상조회로서는 노인회원들이 마음의 평화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이 문구를 사용하게 되었고 넉넉지는 않지만 자신의 장례비를 스스로 마련하여 자녀들에서 작은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네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조회는 설립된 지 30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봉사정신을 구현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돈이 많이 드는 장례식을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엄숙하고 경건한 장례식으로 이끌어 동포사회 장례문화를 이룩하려는 끊임없는 노력 가운데 마침내 장례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몇몇 교회와 두 개의 한인 장의사가 상조회와 뜻을 같이하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어 동포사회의 혁신을 이룰 수 있게 된 시점에 있다.

상조회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상조회 회원들과 동포들을 모실 수 있는 단초가 되어준 뉴욕한인회와 발맞추어 동포들의 사랑과 화합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아울러 상조회는 금년초에 뉴욕주정부 산하 비영리 단체인 뉴욕장례지원재단을 설립하여 상조회관 건립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상조회관은 동포들의 쉼터로 사랑방으로 만들어 개방할 예정으로 동포들의 각종 행사를 치를수 있고 아울러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경건하게 동포들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 것이다.

Our Vision for the Next 100 Years

-In our commitment to honoring the final journey with dignity and reverence -

The phrase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was first introduced in the 1942 Beveridge Report in the United Kingdom, symbolizing a nation's responsibility to provide welfare and support for its citizens from birth to death. While this phrase later became a slogan for ideal social welfare policies, our association has adopted it as a guiding message to express our dedication to ensuring that each member's final journey is solemn, respectful, and sacred.

For our senior members, we strive to bring peace of mind and help them approach the end of life with dignity. Many parents in our community, despite not having abundant means, prepare for their own funeral expenses as a final act of love for their children. Understanding these heartfelt intentions, our association has remained steadfast in its spirit of service for more than 30 years.

Funerals are often costly, yet we have continued working to provide the most dignified and reverent services at affordable prices. Through these continued efforts, several churches and two Korean funeral homes have made the difficult but meaningful decision to partner with us by offering funeral service spaces. This marks an important step forward in improving and transforming the funeral culture within our Korean-American community. With the support of the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and the encouragement of our community, the association will continue walking the path of unity, service, and compassion serving our members and the wider community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Earlier this year 2026, we also established the Korean American Funeral Support Association(KAFSA), a nonprofit organization registered under New York State, taking our first step toward building a dedicated community center. This center will be open as a gathering place and cultural hub for our community. It will host various events and, at the same time, serve as a sacred and affordable funeral space for all.

역대 이사장

제1대 이 금 호 1996-1997	제 8대 서 상 갑 2013-2015
제2대 정 경 일 1998-2001	제 9대 정 원 조 2016
제3대 배 병 수 2002-2003	제10대 김 석 화 2017-2018
제4대 김 인 수 2004-2005	제11대 나 윤 표 2019-2021
제5대 최 영 덕 2006	제12대 김 영 부 2022-2024
제6대 장 제 성 2007-2008	제13대 서 경 숙 2025-
제7대 김 종 식 2009-2012	

상조회 30년 역사기록을 마무리 하며...

사무총장 허도행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300페이지의 상조회 20년사 책자를 펴내면서 저는 마지막 표지에 아래와 같이 저자의 말을 썼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30년 역사기록을 마무리하며 저자의 소감을 쓰려니 10년 전 썼던 소감에서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20년사의 마무리 말을 그대로 옮겨 실으면서 동포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상조회의 밝은 앞날을 기대해봅니다.

화가 김원숙은 그녀의 그림을 실어 만든 수필집 첫머리에 이렇게 썼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이요. 인간이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어느 시인이 갑자기 물어온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는 그녀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게 뭔지를 한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준비하고 있었다는듯이 그런 대답이 나온게 신기했다고 했다. 그리고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 제각기 다른 모습을 즐겨워하긴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니. 그것도 눈 덮인 산, 초저녁의 푸른 하늘, 숨이 멎을 정도의 노을, 어머니의 얼굴 등을 다 제치고 말이다. 사람에게서 따뜻함을 느끼고 감명받는 때는 물론이지만, 특히 인간 관계에서 오는 모든 힘든 일이 겹칠 때 몸부림에 대한 연민이 인간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게까지 한다.” 라고 썼다.

자신의 장례비를 내손으로 마련한다는 일념으로 하루에도 수십명씩 상조회를 찾아오시는 노인분들이 쏟아내는 인생담과, 하소연과, 불평과, 감사와, 격려의 말을 모두 들어드리면서 하루를 보내고는 오늘의 대화들을 생각하며 귀가길의 상념에 잠긴다. 이 모든것들은 찬란하고 아름다우며 말쑥 많고 고통투성이인 삶을 살면서 이루어내는 그분들의 생의 찬가요, 불평이며 마음에 남는 애잔한 것들의 기록이다.

사랑과 미움이 교차하던 수많은 노인분들과의 만남, 이 귀한 사람들이 지금 내 안에서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

그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것은 사람이구나. 너무 눈이 부셔 일상에서는 보이지 않았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어져서 아름답구나.

잔잔한 새벽같이 오는 사랑,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사랑인것을.



One Stop Senior Day Care

원스탑 시니어 데이케어

Live Well. Stay Active. Be You.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One Stop 시니어 센터와
함께하세요!
다양한 행사와 격조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만족을 드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롱텀케어(MLTC) 소지자 외에도
은퇴했거나 은퇴를 계획 중인
모든 시니어가
함께 할 수 있는 센터입니다.



수업 프로그램

- 실버댄스
- 요가
- 필라테스
- 태극권
- 라인댄스
- 레트로댄스
- 줌바
- 합창
- 피아노
- 드럼
- 기타
- 예술
- 그림
- 영어
- 컴퓨터
- 스마트폰



건강한 식사

영양 가득한 뷔페식
아침 식사 및 점심 식사 제공



교통 서비스

모시러 가고, 모셔다드리는
교통 제공



여가 프로그램

- 당구
- 탁구
- 빙고
- 노래방
- 뜨개질
- 바둑/장기
- 보드게임
- 루미큐브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진정한 공동체 생활을 제공합니다.



활기찬 생활



배움의 기회



친구 만들기



즐거워 시간



건강한 삶



커뮤니티 & 이벤트

- 생일 이벤트
- 명절 이벤트
- 전시회
- 콘서트
- 크루즈
- 맨하탄투어
- 야외나들이



미용 서비스

- 헤어컷
- 네일아트



당신의 모습,
우리의 자랑입니다.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516-757-4560



intake@onestopseniordaycare.com



웹사이트 바로가기

세상에서 **제일** 소중했던 분을 향한 당신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사랑과 추억을

제일의 가격과 **제일**의 섬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Flushing, Little Neck, Long Island,
유가족이 원하시는 어떤 장소에서도 함께하는 제일 장의사!

(새로운 장례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24시간 상담사무실

Tel.(718) 404-5252 Cell: (718) 249-3123

45-14 Springfield Blvd. Bayside, NY 11361

(베이사이드 삼원각 대각선 방향)

제 일 장 의 사

First Funeral Home

firstfuneralhome@gmail.com

(516) 305-4714 Fax (516) 269-6950



ELMONT CHAPEL

1529 Hempstead Turnpike
Elmont, NY 11003
(Main Office)

LITTLENECK CHAPEL

4509 Little Neck Pkwy
Little Neck, NY 11362

FLUSHING CHAPEL

넓고 쾌적하며
편리한 교통

* 장례의 관한 모든 절차를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Licensed Funeral Director Eung Ho Han **한 응 호**

축
뉴욕노인상조회 창립 3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북동부지회

The Korean Veterans Association Department of the Korean Veterans

회장 배 광 수

Member FDIC EQUAL HOUSING LENDER SBA Preferred Lender | bankofhope.com



당신이 걸어온대로.
당신이 바라보는대로.

최고의 금융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Bank of Hope®



뉴욕노인상조회 창립 30주년



한미충효회

회장: 임 형 빈
수석부회장: 이 정 공
재단이사장: 김 영 덕

이사: 주 옥 근 홍 종 학 박 성 술 김 용 선
전 상 복 광 호 수 이 종 명 손 성 대
최 재 복 최 윤 희 수 잔 박 김 성 호
설 홍 수 이 영 태 김 요 한



Daniel C. Bae Law Office

배 다니엘 변호사

(뉴욕노인상조회 고문변호사)

민법, 상법, 노인복지, 유산, 상속, 증여 자산보호 등에 대하여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Law Office of Caniel C. Bae, LLC

600 Sylvan Avenue Suite 400, Englewooe Cliffs, NJ 07632

abae@dcb-legal.com (201) 646-1333

뉴욕노인상조회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뉴욕한인회

The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회장 이명석

149 West 24th Street, 6th Floor, New York, NY 10011 • Tel. 212-255-6969 • www.kaagny.org

시니어 건강보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시니어 건강보험 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 대하여 상담하여 드립니다.

***65세 생일 3개월 전에 신청 필수**

***신규가입부터 변경, 신청까지 하여 드립니다**

1.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두개 보험을 소지하신 분은 다음의 추가적인 혜택을 잊지 마세요
 - * 침술, 치과, 안경, 보청기, 발 검사, 운동(Gym), 교통편의 제공
 - * OTC 품목: 건강식품, 영양제, 전기, 개스, 자동차 오일 외 다수
2. 현재 갖고있는 보험의 플랜이 만족하지 않으신 분은 두 번의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AEP: 10월 15일~12월 7일 OEP: 1월 1일~3월 31일**

담당자- 고세진 917-312-3900

판촉물 수입 대행업체

좋은 품질, 저렴한 가격

은혜 since 1998 판촉물 + 새한 since 1988 트로피

GRACE PROMOTION INC.

SEAHAN TROPHY

*****프린팅에서 자수까지*****

타올 및 티셔츠 프린팅, 자수 전문점으로 상호를 넣어 48시간 내에 제작합니다.
교회용품, 업소홍보, 기업선물용품, 단체행사용품 등을 귀하의 상호와 함께 만들어 드립니다



공장/디자인
(347) 925-9022



NY: (718) 461-4666

35-06 154 St. Flushing, NY 11354

NJ: (201) 574-7034 Cell 917-418-5980

23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Email: GracePromo@yahoo.com

축
뉴욕노인상조회 창립 30주년

은혜 데이케어
EUNHAE DAYCARE

Tel: 718-888-9833

Be Healthy & Stay Young with H&Y Marketplace!

고객님의 건강 (Health) 과 젊음 (Youth) 을 위해 연구하는 한인최고 웰빙마켓,
H&Y Marketplace(한양마트)에서 건강리듬에 맞춰 즐겁게 쇼핑하세요!
언제나 고객님의 웰빙라이프를 위해 안전한 먹을거리를
드리는 웰빙마트, H&Y Marketplace가 생활의 가치를 채웁니다.



FLUSHING

150-51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Tel. 718-461-1911

RIDGEFIELD

1 Remsen Place, Ridgefield, NJ 07657
Tel. 201-943-7400

Ha Young Florist



Howard Choi

646.327.0006 / 718.888.0760

푸짐하게 구워먹는

山水甲山2

SAN SOD KAP SAN
Korean Restaurant



(718) 445-4850

171-10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한방나라 한의원

- 중풍 휴유증 • 좌골신경통 • 구안와사 • 오십견
- 치료 한약과 각종 보약

각종 한약재 도매합니다.



녹용 공진단

30개 **\$450**

산삼 공진단

20개 **\$500**



347.698.3948

부재시 문자 남겨주세요.



갈비마을

Galbi Ma Eul

Valet / Street
Parking

한식 전문

“엄선된 고기와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모십니다.

배달 / 투고 가능 (718) 819-2171 194-03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한국관

Hankukgwan (Korean House)

K-FOOD & K-BBQ

24 Hours

한국관 Hankukgwan (Korean House) 韩国馆

(718) 445-1165
38-13 Union St.
Flushing, NY 11354
(구 산수갑산)

매콤하고 맛있는
닭갈비
 한 입 먹으면 멈출 수 없는 그 맛!



(917) 285-2772

158-03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누구나
 좋아하는 건 다릅니다.
 ★★★★★ BBQ No.11

마포 소불고기

마포갈비의
 맛깔나는 밥도둑!



149-24 41ST AVE. FLUSHING, NY 11355 ☎ 예약문의 **718-886-8292**

COWay

| 정수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 다리마사지
| 비데 | 안마의자

김 선 희

646.320.2872

매장: 플러싱 한양마트 (신한은행 건물)



뉴욕노인상조회 창립 30주년



담임목사 이준성

뉴욕양무리장로교회

Flocks Presbyterian Church of NY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 10:11)

35-24 Union St.
Flushing, NY 11354
(718) 662-6611

e-mail: flocks3927@gmail.com

“어두운 밤바다 처럼 유가족분들이 힘드실때
항구에 등대처럼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김민호 장례원

KimMinHo Funeral Home, Inc.

뉴욕 지점

64 Ashford Ave.,
Dobbs Ferry, NY 10522
N.Y.Lic No. 10145

뉴저지 지점

1601 Palisade Ave.,
Fort Lee, NJ 07024
N.J.Lic No. 5326

Tel. 516.488.4763 **Fax.** 845.634.1719
email. Kimfh2024@gmail.com / www.Kimminhofh.com

가족장, 1일장, 장지 & 화장장 & 종교시설 서비스 등등
유가족에게 맞는 장례식을 찾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민호 원장 약력

- 서울 보건대학 장례지도학과 졸업
- 금촌의료원 장례식장 팀장 역임
- NYS NCC 장례지도학과 졸업
- 2023년 ‘미스터 선샤인’ 황기환 지사 -
뉴욕에서 한국으로 모시는 모든 절차 진행
- 대한민국 보훈처 협력 장례원



24시간 긴급전화

347-256-6976

【 NY & NJ 합리적인 가격으로
비석 설치 도와드립니다 】



The Bank of Princeton

Bank Wisely.

*Proud Supporter
of*

Korean-American Senior Mutual

Conveniently Located Throughout
The Tri-State Metro Area



Member
FDIC

www.thebankofprinceton.com | 718.943.9100